

RM 2016-02-693

2015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China-Japan
CAMPUS Asia Project 2015



목차



발간사

최우수

꿈을 찾는 시간	8
최희조 _ 성균관대학교	
ESSAY for CAMPUS Asia 2015	15
Koshiro Nagai _ University of Tokyo	

우수

‘우연’이 가져다 준 ‘선물’들	22
구연수 _ 성균관대학교	
CAMPUS Asia 체험수기	31
윤민근 _ 부산대학교	
CAMPUS Asia Journal	37
Yao Suwei _ Peking University	



장려

CAMPUS Asia 체험수기	48
하지윤 _ 성균관대학교	
 Korean Society and Culture	
- My Life in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	54
Waka Ishikawa _ University of Tokyo	
 칭화대 SPPM 여름학기 교환 프로그램 후기	59
윤충환 _ KDI 국제정책대학원	
 동아시아에의 대항해로 이끄는 빅뱅	72
Toyama Miyu _ Ritsumeikan University	
 중국의 쓴 맛, 한국의 매운 맛, 나의 조미료	77
Maruyama Sayo _ Ritsumeikan University	
 ESSAY for CAMPUS Asia 2015	81
Zheng Lu _ Peking University	
 유럽에 에라스무스가 있다면, 동아시아에는 CAMPUS Asia가 있다	92
김석모 _ 성균관대학교	
 행운이 가득했던 도쿄, CAMPUS Asia 프로그램	99
박홍준 _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발간사

한·중·일 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시범사업은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 마지막 해 ‘2015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열세 명의 열정과 도전이 향후 CAMPUS Asia 본사업을 수행하게 될 대학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체험수기집 발간 등은 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사업단간 정보교류,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판 에라스무스(ERASMUS: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로 동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3국 대학에서 학점 상호인정을 받거나 공동·복수학위 취득, 인턴십 등의 교류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동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부 구 욱

2015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최우수

- 꿈을 찾는 시간
- ESSAY for CAMPUS Asia 2015





최우수

꿈을 찾는 시간

최희조 성균관대학교

(사업단: 성균관대/서울대-칭화대/인민대/상해교통대-나고야대)

● [들어가며]

北京과 中國으로의 두 번째 여행

지난번 수기를 제출한 이후로 두 번의 계절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인민대학교에 도착하여 익숙하지 않은 날씨와 캠퍼스, 그리고 교실풍경에 적응하려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다. 자연히 첫학기를 마친 나의 수기는 파도처럼 닳친 그 모든 새로움에 관한 것이었다. 수기를 제출한 후 똑같은 반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때 당시 패기와 충만한 호기심으로 가득 하던 나는 지금, 북경에서 찾아온 꿈과 삶의 목표로 차있다. 지난 학기가 적응의 시간이었고 중국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학기는 탐구의 시간이었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수학수기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적어보려 한다. 개개의 일화를 전달하여 현장감을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기엔 내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온 것이 너무나 많고, 하고픈 말도 많아졌다. 따라서 수기의 예상 독자 역시 지난번에는 파견을 고민하거나, 앞둔 학생들에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이미 파견을 나가 있거나, 두 번째 학기를 앞둔 학생들에게 맞췄다. 부족한 수기의 공유를 통해 우리가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 [돌아가다]

인민대에서의 두 번째 학기

북경에 들이닥친 한파를 피해 한국으로 잠시 들어와 있던 지난 겨울, 서울에 봄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북경에도 봄이 왔겠거니 하며 돌아간 나를 반긴 것은 겨우내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북경수도공항의 풍경이었다. 그때 지난 학기 내내 나를 따라다니던 생각이 다시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중국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이러한 나의 자각과는 사뭇 다르게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나의 모습은 현지인에 다름없었다. 공항 출국장 3층의 중국은행에서 출금을 하고, 입국장 1층의 면세점에서 초콜릿을 조금 산 후, 학교로 가는 공항버스와 가장 가까운 게이트로 나가던 나의 모습은, 회상해보면 북경에서의 나의 두 번째 학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한 나의 시간은 두배로 더 빨랐다. 적응이 끝난 북경과 인민대에서 얻어가고 싶은 것이 두배로 많았기에 그러했다. 가능한 많은 수업을 들으려 노력하였고, 더 많이 여행을 다녔다. 지난학기에 사귀 친구들과는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 [꿈을 꾸대]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 - 동아시아 공동체

인민대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당장 나의 룸메이트도 독일인이었고,



화산의 정상

두 번째 학기에는 특히 여행을 많이 다녔다. 첫학기에는 경험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는 인민대와 북경 안에서 교우관계 및 학업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학기에는 무엇보다 공휴일이 많았고, 첫학기에 사귀어둔 친구들이 함께하여서 많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중국법을 공부하는 교실에는 각국의 학생들이 넘쳤다. 그중에서도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아마도 유럽과 동아시아가 영국, 미국과는 다르게 대륙법이라는 법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이고, 중국과 EU 간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그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의 중국 교환학생 경험 중 가장 큰 행운이었다. 개강 첫주의 자기소개 때마다 우리 CAMPUS ASIA 학생들이 코리안, 재패니즈, 차이니즈, 하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같이 ‘나는 유럽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출신 국가를 얘기하였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뉴스와 책으로만 EU에 대해 접하던 내게 유럽은 충돌방지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짙어보였고, ‘PIGS 재정위기’, ‘그렉시트’ 논란 등을 목도하며 유럽공동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교실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중요한 것은 밖에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변화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 마침내 우리 사업단의 연구과제인 동아시아 공통법(Jus Commune)과 CAMPUS ASIA 사업의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피부에 닿기 시작했다.

나의 이런 생각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온 CAMPUS ASIA 학생들도 역시 공감했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은 행동을 해보기로 하였다. 인민대학교에서 연례행사로 열리는 ‘International Forum for Law School Students’에 팀을 만들어 발표를 하기로 한 것이었다. 뜻을 함께한 중국친구 한 명과 일본친구 두 명, 그리고 나는 두 달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한중일 정부의

법률시장 통제’라는 제목으로 3국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대하여 발표를 했고, 교육과 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3국 공통 변호사 자격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대학원생들을 위한 포럼에 학부생인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의 제시라는 포부 하나로 덤볐고, 포럼내 유일한 팀발표이자 비교연구발표를 할 수 있었다.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었고, 두 달을 통째로 헌납하고 발표준비를 한다고 가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지도 않았던 우리가 교수님들을 찾아다니고, 매일같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다.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내놓고 싶었고, 실제로도 발표 후 이어진 청중들의 관심과 찬사들 보다는 우리 안에서 찾은 답이 뇌리에 깊게 남았다. 이 지엽적인 주제로



포럼에서의 발표

인민대학교 로스쿨 안에서 꽤나 크게 치뤄지는 포럼에 발표자로 나서는 것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지만, 그보다 더 뜻깊었던 것은 중국과 일본친구들과 함께 발표를 준비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발표를 하며 3국의 학생 간에 이 작은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배운 것 역시 큰 교훈이 되었다.

TIP1

인민대학에서 만나는 다양한 외국인들은 중국정부의 소위 ‘소프트 파워’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국가장학생이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오고(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나가는 구간과 거의 일치한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한다.

하나의 발표를 하는 데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리 사이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였고 타협했으며, 서로에게 배웠다. ‘동아시아 공동체’ 역시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와 같은 작은 협력과 상호학습의 경험들이 모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것이 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주 요원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TIP2

중국, 특히 북경에서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이러한 활동의 기회를 아주 많이 접할 수 있다. 북경에서 접하는 한중일 교류협력 프로그램들은 한국에서 접하는 것과 내용과 방법론에서 다르므로 3국 협력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기에 좋다.

● **한국에선 꾸지 않던 꿈, 중국에서 꾸다?**

통일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우리역사와 정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와 정치 중에서 단연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을 꼽는다면 바로 ‘분단’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또래에게는 다른 모든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이 ‘분단’이다.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를 경험한 적도 없고, 분단과정을 보지도 못했으며, 북한에 대해 가까이서 느낀 것이라면

쌀을 포탄으로 값은 배신의 역사뿐이다. 우리세대가 바라보는 통일은 그래서 매우 괴리감 있고, 공상적인 것이다. 통일에 대한 세대별 찬성도 조사에서 항상 가장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20대인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고, 대학에 와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며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의 통일 역시 그렇게 깨졌던 것 같다.

그런 내게 중국과 일본에서의 CAMPUS ASIA 프로그램 수학은 생각의 총체적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매우 점진적으로 밀바닥에서부터 천천히 한반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그렇게 바뀌어 갔다. 그 중에서도 교환학생기간 내내 나를 따라다니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을 한반도로 가져오게 하였다. 지역 내에서 통합을 말하며 그 한가운데에 있는 북한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논의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은 또한 실리적으로도 맞는 일이었다.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들과 통합을 논의하는 한국은 작다. 중국에 와서야 깨달은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통일한국으로서 공동체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지렛대가 될 것이다.



북한식당 내부

: 중국에서는 북한을 매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사진은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북한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북경 중심에 위치한 식당. 선전용 식당인 만큼 굉장히 호화스럽다. 맛있기로 소문난 평양냉면을 앞에 두고도 잘 먹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통일이 당위적으로 옳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오성홍기의 노란 별들과 거의 모든 거리에 비치되어 있던 공산당 광고는 70여년 전 한반도를 둘로 나눈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곤 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수학하며 바라본 한반도는 우리의 의지로 나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잦은 접점들의 집합으로써의 38선이었다. 동아시아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역사문제라면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문제부터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분단이야말로 역사의 흉터가 가장 깊게 자리한 현상이며, 또 이의 치유로부터 동북아의 역사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만약 ‘동아시아 공동체’가 실현 된다면,

면, 그는 아마 한반도의 통일로부터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에서는 꾸지 않던 꿈을 중국에서 꾀 것이다.

TIP3

중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교실 안과 밖에서 그들은 한국인들과 북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며, 또 한국과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우리만큼이나 북한인민들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북한체제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에게 큰 느낌표로 다가온다.

● **[나가며]**

CAMPUS Asia? CAMPUS Asian!

지난 1년간 나고야와 베이징에서 보낸 시간은 나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중국과 일본을 전에 가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인 CAMPUS Asia사업이 주는 과제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좋은 양질의 교육과 환경은 같은시간동안 나를 두배로 성장하게 하였다.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반도 통일의 꿈을 가지고 돌아온 나는 지금 그의 실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외교관 선발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1년 전,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확실 했던 나의 삶은 오늘 꿈과 목적,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차 있다. 앞서 문두에 미리 밝혔듯 지난 체험수기와 다르게 이번 수기는 내가 그려온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생각



캠퍼스아시아 3기

인민대학교에서의 1년여 수학과정 중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지체없이 이들을 선택할 것이다. 중국과 북경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만난 한중일의 학생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이야기로 그 어떤 수업보다 좋은 공부터였으며, 그 어떤 여행지보다 즐거운 교류였다.

과 표현의 부족함으로 느낀 것들을 충분히 담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수학과정을 통하여 가져온 것들이 뒷기수의 학생들에게 작은 영감이나마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다.

가을은 수확과 감사의 계절이다. 봄에 파종한 씨앗들이 가을을 맞아 여물고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보여주는 이 때, 지난 1년 여간의 캠퍼스 아시아 파견수기를 작성하는 것은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정리와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CAMPUS Asia 시범사업이 각국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연장된 데에는 사업을 관장하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

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데에는 사업의 혜택을 받은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미 과정을 끝마친 학생으로서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해본 고민 중 가장 큰 것을 기술하자면, 프로그램명이 CAMPUS Asia인만큼, 중국과 일본에 균형적으로 체류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좋겠다. 나의 경우는 일본에서 국제하계학기를 하고 중국에 1년을 체류해서 양국 모두에서 수학하였으나, 양적 불균형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간의 해외체류는 학생들의 학사학위과정생으로서의 전공지식 습득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단 내 각

학교간 커리큘럼의 공유와, 나아가 장기적으로서는 하나의 전공으로서의 ‘CAMPUS Asia’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더 완벽해진 프로그램 아래서 나보다 더 큰 꿈을 꾸는 학생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의 마지막 수기를 줄인다. 비록 수기는 마지막일지라도 CAMPUS Asian으로서의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LAST TIP

캠퍼스아시아는 파견을 마쳤다고 끝나지 않는다. 나역시 3기로서 학교에 돌아와 이곳에 오는 4기 학생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학기가 끝나간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기를. 어쨌든 그곳에서보다 더욱 바쁘게, 또 더 많이 배우며 CAMPUS Asian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것이니.



최우수

ESSAY for CAMPUS Asia 2015

Koshiro Nagai University of Tokyo

(Consortium: Seoul National University-Peking University-University of Tokyo)

최
우
수

2006년 8월 6일 아침.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히로시마의 노면전차 안에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있는 내 눈앞에는 제복을 입은 여고생이 있었다. 그녀가 잠시 화장을 마쳤나 하는 순간 이번에는 휴대폰과 눈싸움을 시작했다. 오전 8시 15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며 전철이 멈춰 섰다. ‘사고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앞에 앉아 있던 그녀가 휴대폰을 켰다. 목님의 방송이 들려왔다. 이유를 모르고 내내 서 있던 내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나와 그녀를 사이를 가로막는 벽. 그 온도차이에 나는 악연히 놀랐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핵과 평화의 문제와 씨름하기로 결정하였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동아시아에 빠지게 된 계기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교

환유학을 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국제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님을 만났다. 당시 화제에 오르고 있었던 이란이나 이라크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연구해볼까 라고 생각해 상담을 했던 나에게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You are an Asian, so why don’t you study on North Korea?” 납득이 갔다. 그리고 이전 공동논문으로 dots리현과 한국 강원도의 자매도시 교류를 테마로 논문을 쓴 것이 문득 생각났다. “한반도. 재미있을 것 같다. 좋아. 하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북한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역시 한국어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선 현지에 가 보자라고 생각되어 2012년 2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행선지는 부산

이었다. 2주일 동안 초심자에 대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에게 있어 한국과 연구대상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내 발이 금방 캠퍼스 아시아로 향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동아시아 안전보장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론적인 배움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레벨로 생각하고 장래에 배운 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 우수한 인재와 연계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는 먼저 미국의 공공정책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수험준비를 했다. 그렇지만 벽에 부딪혔다. 높은 비용 부담, 직무경험의 부족, 영어실력의 부족 등 가지각색의 허들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의기소침한 나에게 캠퍼스 아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정보가 들려왔다. 들어보니 도쿄대학교, 서울대학교, 베이징대학교에 3곳에서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3국의 탑 스쿨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이 중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캠퍼스 아시아는 더 없는 매력적인 것이었다. 동아시아를 동아시아에서 배우고 장래는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위치에서 공헌하고 싶

다. 면접에서 아직 현실성에 모자란 꿈을 이야기하고 허풍을 떠 나에게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캠퍼스 아시아 1년째, 도쿄대학교에서의 나날은 많은 만남이 넘친 매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캠퍼스 아시아 코스의 1기생으로서 들어온 동기 7명은 나보다도 엄청 우수하며, 비전이 넘쳐 있었다. 도쿄대학교에서 개최한 캠퍼스 아시아 섬머스쿨과 하치오지 선언이라고 하는 합의문을 요약한 캠퍼스 아시아 학생회의 등을 학생주도로 기획하고 1년차부터 열심히 할 수 있었다.

특히 캠퍼스 아시아 섬머스쿨을 동기와 함께 만들어 낸 것은 잊을 수 없다. 나는 한중일의 학생들을 데리고 고향인 후쿠시마 미나미 소마로 필드트립을 주최했다. 경제 가치를 잃었지만 도살되지 않고 살게 된 소들이 사는 ‘희망의 목장’을 방문했다. 많은 소들이 생활하는 그 목가적 풍경과 보이지 않는 방사선의 공포에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품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후에 부흥을 위해서 전력하는 젊은 경영자나 장래의 꿈을 이야기하는 현직 고교생과 토의 세션을 거쳐 후쿠시마의 희망도 찾아낼 수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참가 학생 중 한 명은 “오늘 경험은 잊지 못한다. 앞으로도 후쿠시마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해 준 것은 정말로 기뻐다.

도쿄대학교에서 1년을 마치고 드디어 유학을 가는 단계가 되었다. 내가 먼저 향한 곳은 중국이었다. 베이징대학교에서의 배움은 일본에서도 논의한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배울 수 있는 신선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주어진 것인 민주주의도 중국에서는 물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인가'라고 하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각도로 논의를 할 수 있고 지적 자극을 받았다. 동시에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논의의 전제를 확실히 공유, 확인해 가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시점에 의거하는 논의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법인가, 또 다른 틀인가 그러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 수업 이외에는 친구들과 많은 역사유산을 방문했다. 중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웅대한 정치에 압도된 것도 좋은 추억이다.

드디어 나에게 있어 최후 1년인 한국 유학생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1년은 나에게 있어 가장 충실하고 밀도가 짙은 1년이 되었다. 한국 유학 생활 초반에 한일교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나는 단기간이지만 사무국스태프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전야제와 축

제에 와 주어서 현장은 굉장했다. 나는 서투른 한국어로 더욱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몹시 반성 하였지만,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을 만나 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일본 주한대사와 한국 외교부 장관의 첫 회담을 이 한마당 자리에서 행하여 진 것은 정말로 감개무량한 경험이었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행복한 느낌을 받고 동시에 민간교류가 이러한 장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능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다해야 할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무력함에 고개를 숙인 적도 있었다. 특히 부족한 내 한국어 실력에는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수업을 중심으로 이수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와 함께 마음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저해되어 버렸다. 역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속 깊은 문화는 알 수 없다. 그런 당연한 것을 통감하였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캠퍼스 아시아 학생을 향한 수업을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배움이 컸다. 예를 들면 Conflict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수업에서는 한국과 중국 학생 그리고 그 이외의 유학생들이 제공해 주는 제3자적 시점

을 더한 형태의 그룹 프레젠테이션이나 토의를 했던 것이 재미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 역사교과서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 이상으로 의외의 공통점이나 서로 비슷한 기술 등을 찾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차이만을 과장하는 매스컴의 보도내용과의 차이에 교과서기술을 맞대면서 학생끼리 얼굴을 마주 보고 논란 적도 있었다. 그 위에 어려운 정치과제를 극복해 가기 위한 정치 리더십의 깊이를 알아차릴 수도 있었다. 일부 학계에서는 논리를 세운 설명에 고집하는 나머지 정치에서의 속인적(屬人的)인 부분의 중요성을 경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일국교정상화에 있어서 타나카 카쿠에이와 저우언라이의 역할을 보면 두말 할 나위 없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한중일 학생끼리 재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외에는 캠퍼스 아시아 친구들과 같이 한 필드트립도 깊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 필드트립 만이라도 부산, 안동, 경주,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장소를 돌고 한 곳, 한 곳에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여행을 갔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광주에서의 나 홀로 여행이다. 학부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배운 이후로 광주에는 언젠가 가고 싶었다. 구도청사, 국립 5.18

민주묘지, 전남대학교 등을 돌고 한국 민주주의의 원점을 더듬어 간 것은 큰 경험에 되었다. 구도청사의 주변을 돌아다녔을 때는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집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민주주의를 움켜 쥐어 온 한국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 이외에도 한국과 한반도를 현장에서 배우며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전쟁박물관, DMZ 판문점 등에서 6·25전쟁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를 습격한 슬픔의 역사와 현대의 연관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판문점에서 북한병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우리들은 아직 냉전에 살고 있다.’

진한 1년간을 보낸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잊을 수 없는 경치가 많이 있다. 기숙사 뒷산으로부터 보는 서울 시가, 도서관 창문으로부터 보는 캠퍼스, 봄의 꽃들, 교정에서 들리는 음악소리, 이것들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내 뇌리에 새겨지고 있다. 지금 상기해도 선명히 내 눈앞에 되살아나고 문득 캠퍼스에 되돌아가고 싶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학은 아름다운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 마음이 느껴지는 유학이었다. 서투른 한국어 회화를 같이 해 준 친구가 있었다. 같이 밤늦도록 수업자료를 만들어 준 친구가 있었다. 소주를 마시고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장래에 불안을 서로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어 의미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하루도 있었다. 친구가족과 같이 노량진시장에서 식사를 했다.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면, 생선가게의 사장님이 그대로 식당에 따라와서 같이 술잔을 서로 주고 받는다. 잠시 후 생선가게의 사장님이 일을 하러 돌아가면 다음에 우리들은 옆에 있었던 손님들과 같이 마시기 시작했다. 거기에 손이 비었던 식당 사장님도 들어온다. 활기를 띠는 이야기와 늘어나는 술. 이것이 한국의 따뜻함이며 포용력이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모두 형제다. 그리고 어찌면 이러한 교류 속에야말로 동아시아가 풍부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는 작은 힌트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몽상해버린다.

물론 이러한 흔한 예를 인용하여 ‘정치문제는 인간 교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단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이외의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캠퍼스 아시아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흥금을 터놓고 논의하는 것의 의미를 실감해 왔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해도 처음으로 간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영토문

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친구와 같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때도 있었다. 소주 탓에 한일 관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고조되어 친구와 말다툼으로 번진 적도 있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친구가 되어 왔다.

흥금을 터놓아 논의하고 친구가 되면 된다.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들이 리더가 되어가는 것이다. 한중일을 위해서 같이 일해 나가는 리더들 배출하는 것. 그야말로 캠퍼스 아시아의 성공 여부를 결정되는 장래의 지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캠퍼스 아시아를 지원해 주신 여러분에게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더 한층 장기간 지원을 부탁하고 싶다. 또한 그 때문에 나도 무엇이든지 협력 할 것이다. 캠퍼스 아시아의 친구는 장래 같이 한중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동료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이 일하고 서로 이야기한 꿈을 실현한다. 이것을 캠퍼스 아시아 친구들과 진척시켜 가고 싶다. 내가 CAMPUS Asian으로서 보낸 2년반은 내가 이 도전을 시작해 가기 위한 출발선까지 데려 와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사회에서 승부할 차례이다. 캠퍼스 아시아 친구들과 함께.

2015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우수

- '우연'이 가져다 준 '선물'들
- CAMPUS Asia 체험수기
- CAMPUS Asia Journal





‘우연’이 가져다 준 ‘선물’들

구연수 성균관대학교
(사업단: 성균관대-길림대-오카야마대)

① 단기 유학 튜터, 인생을 바꾼 CAMPUS Asia와의 만남

CAMPUS Asia와의 인연은 2012년 여름 방학 기간 중 단기유학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한 일본인 학생들의 튜터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학생들의 한국생활 보조 및 한국어 학습을 도와줄 튜터를 찾고 있는데, 일본어가 가능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었지만,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실제로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처음으로 일본인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튜터에 지원했고, 합격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튜터를 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고민의 연속이었다. 다음에는 어디를 데려갈까, 무

엇을 먹을까, 무엇을 체험할까.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본인 친구들이 즐거워할 만한 관광지를 검색하며 일정을 만들어 갔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고, 친구들도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친구들과 즐거운 여름을 보냈다는 기쁨과 함께 마음속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3주간, 나는 나 자신이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일본의 문화와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알고 있었더라면, 보다 친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문화의 이해가 결여된 언어의 학습은 헛된 것이라 느껴, 처음으로 일본유학을 꿈꾸게 되었다. 이 튜터 활동을 계기로, 방학 후에도 CAMPUS Asia의 장

기유학생 튜터를 계속 담당하게 되었고, 학교와 집, 도서관만 왕복하던 내 생활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거의 매일 일본인 유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이 귀국할 때는 일본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0월부터 1년간 일본 오카야마 대학 문학부로 교환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② 오카야마대학 장기유학 파견

오카야마대학으로 파견을 나갈 당시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에서 일본 유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오카야마는 후쿠시마에서 약 700km나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과, 일본 내에서 지진, 쓰나미, 태풍이라는 3대 자연재해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성균관대-오카야마대-길림대 사업의 경우 역사, 고전, 문화 등 문학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나의 전공분야인 역사를 깊게 연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나아가, 한국에서 담당했던 일본인 유학생들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이 든든한 튜터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오카야마는 관광지로서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매일 왕복하며, 산

요(山陽)신칸센이 정차하는 도시이다. 지리적으로는 좌측에 히로시마(広島), 우측에 고베(神戸)와 오사카(大阪)가 있으며, 위로는 돗토리(鳥取), 시마네(島根), 그리고 아래로는 시코쿠(四国) 섬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지로 불린다. 실제로 오카야마시(岡山市)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적도 있다고 한다. 시내에서는 모두들 자전거를 타며 생활한다. 낮고 평탄한 지대에 위치하여 자전거를 타기에 적격이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친구들과 노래방을 갈 때도, 시역소에 행정 처리를 하러 갈 때도, 모두들 자전거를 타고 움직인다. 날씨도 참 맑다. 연중 비가 많이 내리는 일본에서, 오카야마는 캐치프레이즈로 ‘맑음의 나라(晴れの国)’를 내걸 만큼 비가 적게 내린다. 태풍이 와도, 눈이 내려도 절묘하게 오카야마만은 피해간다. 그리고 하루가 빨리 저문다. 대학 주변은 8시가 되면 어둠이 내리고 조용해진다. 나는 이 어둠이 좋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던 나에게, 어둠은 마음의 안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생활에 불편이 없는 편리한 도시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이 보존되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리고 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는 이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③ 동아리, 일본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여자 응원단원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동아리’ 활동이었다. 일본은 ‘동아리’의 천국으로 유명하다. 학교생활이 학업에 집중되어, 동아리 활동은 이름만 남아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에 학업만큼의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그 정점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1회 2시간~3시간씩 주3,4회의 모임을 갖는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들 자발적으로 거의 모든 모임에 참여한다. 우리나라처럼 학과 생활이 보편화되지 않은 일본이기에,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동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일본 대학생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동아리인 만큼, 나 역시 오카야마대학에 간 이후에 동아리 선택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고민을 하던 중, 학교 축제에서 응원단의 무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새까만 학생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며, 큰 목소리를 내는 그들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의 대학 응원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열정이 충분히 느껴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학교 축제가 끝난 후, 그들에게 메일을 보내,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응원단은 그 대학의 역사와 함께하는, 깊은 전통을 가진 단체다. 대학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이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에, 외국인 그것도 교환학생인 내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나를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일본 대학의 응원단은 전통적으로 남자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카야마대학의 응원단은 독특하게도 지속적으로 여자 응원단원이 존재했다. 또한, 현재 전일본 대학의 응원단이 단원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보니,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응원단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들어갔을 때에도 현역 단원은 나와 단장님 두 사람 뿐이었다. 그래서 무대에 설 때에는 졸업생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곤 했다. 그런 사정인지라 응원단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카야마대학 전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일본 역사상 첫 외국인 여자 응원단원이었기에, 여러 신문과 뉴스 등 미디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신문이나 TV를 본 지역 주민 분들도 체력훈련을 하는 나에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타인을 응원하기보다는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응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응원단원으로서의 생활은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먼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건장한 남학생들과 똑같은 훈련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응원단에 들어간 직후에는 훈련이 끝나면 기절하듯 쓰러져서 잠들곤 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모두의 훈련에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정기훈련이 없는 시간에 혼자 조깅 등 체력단련을 하며 체력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일본의 뜨거운 태양과 숨 막히는 습도 등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다. 처음엔 한여름에도 새까맣고 두꺼운 학생복을 입고 태양 밑에 4시간 정도 서 있으니, 온 몸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익숙해져야 된다고 느꼈기에, 훈련이 없

는 날에도,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수업을 들을 때도 항상 학생복을 입고 생활하며 몸을 단련시켰다. 또한, 언어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전통이 깊은 응원단이기 때문에, 고전 일본어가 사용된 응원가를 외워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전 일본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었기에, 수첩에 가사를 써서 항상 외우면서 걸어 다녔다. 그 결과, 노래가 흘러나오면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교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단원으로서 인정받아 현재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왜 응원단에 들어갔느냐고 질문을 받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짧은 유학 기간 동안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에 참가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오카야마 대학생과 현민(県民)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매일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비롯하여, 낯선 땅에서

우
수

의 생활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카야마 대학생들과 현민들은 이방인인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었고, 어떤 차별과 편견도 없이 한 명의 ‘오카야마 대학생’, ‘오카야마 현민’으로 대해주었다. 그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느끼며, 그 감사를 어떠한 형태로써 돌려주고 싶다고 느꼈다. 그 결과 응원단원이 되어, 오카야마대학과 현민에게 목청껏 ‘힘내라!(頑張れ!)’라고 외치게 된 것이다.

④ 연구, 한일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과 양국 인식 차이

동아리생활 못지않게 열중한 것이 전공 연구였다. 비록 사학과이긴 했지만, 역사 그 자체보다도 '역사교육'에 관심이 있었다. 게다가 오카야마대학 문학부(文学部)에는 한국사 전공이 없었다. 동양사가 있기는 했지만, 중국사가 중심이 되어, 나의 전공 분야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수업계획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과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歴史認識論争と学校教育(역사인식 논쟁과 학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학부(教育学部) 사회과 교수님이 담당하는 수업이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분야로, 담당교수님의 주관에 따라 상당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수업이기에, 불안을 안고

첫 수업에 출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수님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주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서술이 시대와 정권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면, 오늘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의 역사교육에 대해 일본 학생들에게 PPT발표를 해 줄 것을 권유받았다. 약 한 달 가까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나는 정식으로 교수님께 지도를 부탁드렸고 교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교육학부 교수님의 도움으로, 나는 많은 교육학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역사와 영토 등 민감한 주제로 토론 및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들 앞에서 한국 역사교육의 실정을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으며, 교수님의 소개로 일본 국내의 다양한 학회는 물론, 한일사회과교육 국제학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또한 교수님은 교육학부의 다양한 학생들과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 1학년 신입생 수업의 수업을 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지도시간에의 참석도 권유해주셨다. 한국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평범한 학부생으로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에만 만족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마음이 맞는 지도 교수님을 만나 학부생의 신분으로는 보통 누릴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아왔다.

일본학생들과 많은 생각을 나누며, 내 자신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유학을 떠나기 전, 나는 꽤나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

다. 무조건 한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은 옳으며, 일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일본이 틀린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일본 사람들의 주장을 논쟁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이해하게 되었다. 양국의 학생이 서로 달리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싸우고자 달려든다면, 그것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어떤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상대를 ‘설득’시켜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미 내가 배운 지식은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시켜버린다. 하지만 역사는 주관적인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 역시 한 명의 인간이며,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도 결국 ‘주관적으로 선택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타국의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이 가진 지식과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배경에서 그것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비단 위안부나 독도 같은 근현대의 문제가 아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워낙 가까운 만큼, 전방후원분의 존재와 의미, 도래인과 천황의 관계 등 한국사 전체에 걸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한일사회과교육과 국제 학회장 앞에서

그러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왜곡’과 ‘친일’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무조건 부정하고 자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⑤ 중국과의 만남, 언어를 뛰어넘은 진심

CAMPUS Asia에 참가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중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CAMPUS Asia를 시작할 때, 나의 관심사는 오직 일본에 있었다. 중국과 중국인에 전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 오카야마대학에 와서 만난 중국인 룸메이트와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 크게 다툰 뒤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 처음엔 중국인 친구가 생기지 않았다. 그들도 나의 싸늘한 표정과 태도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만난 중국인 룸메이트는 이전 룸메이트와 완전히 다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차갑게 얼어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나에게 ‘힘내라’는 편지를 써서 책상 위에 자주 올려두었고, 역할 분담표에 적혀져 있지 않은 일까지도 먼저 찾아서 하곤 했다. 우리는 점점 사이가 좋아졌고, 그 친구는 한국어를, 나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언어로 교류하는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비롯한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늘어갔다.

그러던 중, 유학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여름방학에 개최되는 CAMPUS Asia Summer School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일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전에 껴보지 못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나는 파견 시점부터 일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므로, 오카야마대학의 일본어 과정에 등록하지 않고, 전공수업을 잔뜩 들었다. 그러다보니 일본어를 말할 수 없는 외국인과의 만남이 거의 없었다. 한국학생들이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지만, 중국학생들과는 짧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짧은 영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마음뿐이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언어가 아닌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마지막 날, 중국인 장기유학생 친구들에게 몇



오카야마 공항에서 중국인 친구들을 배웅하며 뜨거운 포옹

번이나 침착을 받으며 중국어로 편지를 썼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을 기념으로 선물해주었다. 그 순간 받은 포옹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뜨거웠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4개월 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출발 당일, ‘조금 이따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느꼈다. 올해 말에는 배를 타고 중국에 가볼 생각이다. 벌써 다섯 번째 중국 비자를 신청한다. 중국에 관해 읽은 책만 50권 가까이 된다. CAMPUS Asia는 중국에 대한 나의 편견을 애정으로 바꾸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다. 또한 당시 단기유학을 왔던 학생 중에 한 명과는 헤어진 후에도 매일 QQ를 통해 교류를 했고, 서로 의형제를 맺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만나지 못한,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



길림대학이 위치한 장춘(长春)에서 친구들과 재회,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중국인 중에서 찾은 것이다. 이제 중국은 단순한 ‘친구’의 나라를 넘어서, 나의 ‘가족’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⑥ 일본기업 취직, 목표는 동북아시아 전문 비즈니스맨

나는 3학년 2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채운 상황이었기에, 유학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며 취직활동(就活)을 했다. 그리고 현재 세 곳의 전자기기 제조업체로부터 내정(內定) 연락을 받은 상황이다. 나의 목표는 ‘한중 일을 넘나드는 동북아시아 전문 비즈니스



중국 소주(苏州) 대형마트의 파나소닉 특별매장에서

맨'이 되는 것이다. 바로 '基日本 知中国 用韩国', 일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중국의 사회 경제를 이해하며, 한국인의 근로정신과 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동북아시아 각국의 매력과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

끝으로 일본 유학은 물론, 중국과의 만남, 일본 현지에서의 취직을 이끌어준 CAMPUS Asia와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CAMPUS Asia와 함께한 경험은 모두 나에게 '선물' 같은 것이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을 받으며 행복을 느껴왔다. 교환유학을 떠난 것도, 그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도, 밤을

새워 연구를 하던 것도,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도 말이다. 평범했던 나의 대 학생활이 특별해졌고, 심지어 해외취업까지 하게 되었다. 장장 3년 반의 CA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내년 졸업과 함께 입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CA를 통해 얻은 수많은 교훈과 추억들은 마음속에 영원할 것이다. 이제 CA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 들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학생으로서, 내가 앞으로 졸업 후에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CA 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니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한중일의 진정한 화합을 응원해가겠다.



CAMPUS Asia 체험수기

윤민근 부산대학교
(사업단: 부산대-상해교통대-큐슈대)

우
수

[도전과 경험]

●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2주간의 상해교통대학교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관련 대외활동에 참여하였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얻고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매수업마다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들의 강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중을 하여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환경 분야와 교수님의 연구주제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까지 배웠던 전공과목을 복습하고, 교수님들의 연구 진행과정과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놓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또



엔진 분해/조립 과정

© OT SIDI엔진 분해모습(개별학 명진, 2010년)



그림 1 실린더모습 -실린더의 온도를 낮추기위그림 2 intake manifold에 달려있는 것으로
해 oil hole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소시의 공기를 피해주는 컨트롤장치

한, 환경 분야 수업을 SJTU에서 접하게 되면서 환경과 공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 최고의 증거는 단연 경험이다

수업을 모두 수강한 후 일주일간 랩실을 구경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Group 7에 속하여 2.0T SIDI엔진을 직접 조립, 분해를 해보면서 GDI(Gas Direct Injection)엔진의 특징들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내연기관 수업을 통해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 크기는 얼마만한지 등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는데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왜 최고의 증거가 단연 경험이라고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림 4 SI엔진은 스파크 점화가 필요한데 점화 효율을 올리준다. 화coi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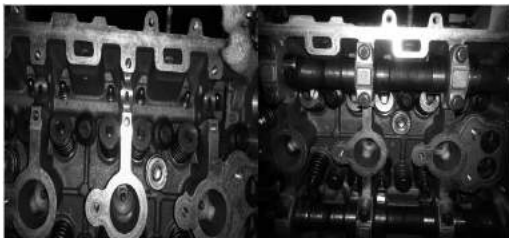


그림 5 실린더내부모습으로 푸쉬로드, 로코암그림 6 VVT엔진에 연결된 캠2개이다. 캠의 크기는 보이지 않지만, 스프링의 충격을 받음 각각다른데그것으로 흡기,배기조절

[도전 정신]

●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을 마치며 자기 분야의 전문 내용 습득과 영어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10일간의 규슈대학교에서 진행되는 M2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후원해준 사업단체가 같은 곳이었고 또 다시 참여하기 어려운 기회였습니다. 어려운 기회인걸 알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CAMPUS Asia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 그동안 노력해왔던 과정들을 보여드리며 참여의지를 크게 나타냈습니다. 의지를 높게 봐주셔서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2 강의 중 태양전지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석사과정을 진행 중이던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연구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학부생이었기에 따로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를 수긍하지 않고 ‘학부생이 교수님들과 많은 대학원생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은 당연히 ‘아니다’였으며 참여한 다 하여도 힘든 과정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대학원생들에 비해 짧은 시간의 연구과정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에 두렵기

도 하였습니다. 그 순간 테일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오래 살지 못 한다’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또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하고 오사카대학교에서 Frontier Lab Mini Program에 참여하면서 얻었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로 정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다양한 학술지에서 얻은 자료를 참고해 교수님과 논의하며 산소농도에 따른 전류 밀도차이의 실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발표 자료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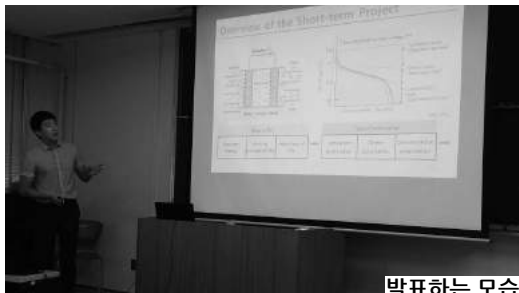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수님께서도 저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셨고, Best Presentation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발표 사전 조사]

● 만족은 과정에서 온다

- 연료전지에 대한 조사
 - oxygen concentrating devices
- 이전에는 연료전지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효율 증가방법 등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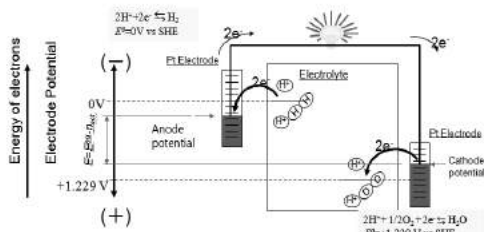
우
수



발표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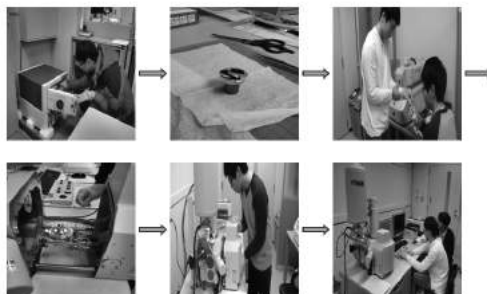


1. Research work



- (1) **Activation Polarization** : Occur due to overcome the gibb's free energy. It usually occur low current density.
- (2) **Ohmic Polarization** : Low potential gradient between Pt side hydrogen ion with the other side Pt side hydrogen ion.

2. Labora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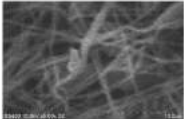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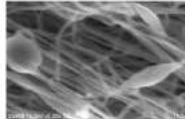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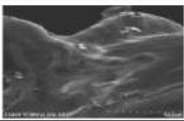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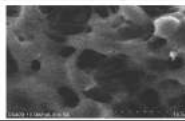
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 했습니다.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 많은 논문과 인터넷, 책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연료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교수님이 지정해 준 부분(멤브레인 쪽에서 산소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빈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탄소와 백금의 표면 단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과 멤브레인 구조, 재료 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대학생활 중에서 나온 과제들은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난 후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방식이라 조금의 노력만 투자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준비과정에서는 특정한 내용을 방향성 제시 없이 찾아보면서 다양한 서적들을 보는 기회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찾고 싶어 하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찾은 내용들로 번역하여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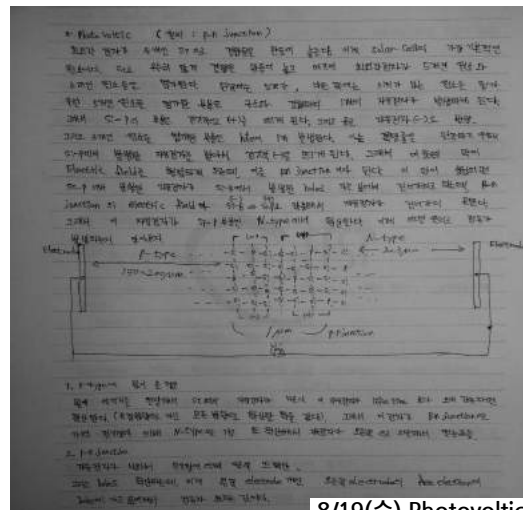
드는 과정은 힘이 들었지만 과정을 통해 부족한 영작능력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발표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내용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법의 흐름을 모두 확인하고 사전에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방향성이 없는 문제나 접해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해도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는 경험에서 끈기 있게 탐구하여 해결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지식 함양]

● 배움이 있어야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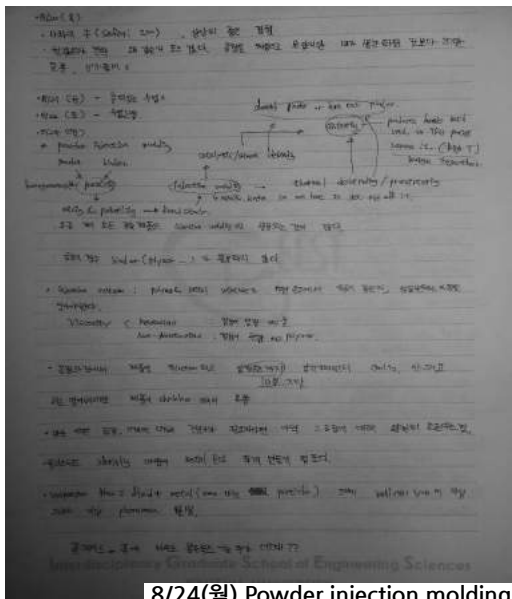
2주간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겠냐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Condition	600 °C-heating 15min 600 °C-retain 15min 20°C-cooling 5min Vacuum condition	600 °C-heating 15min 600 °C-retain 8min 20°C-cooling 5min Vacuum condition
White		
Yellow		



8/19(수) Photovoltaic

짧다면 짧은 2주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였습니다.



8/24(월) Powder injection molding

● 지열발전소 견학

- Geothermal power station of kyushu electric power co.inc

지열발전소의 원리는 마그마 까지 약 20km에 달하는 거리를 파이프를 연결하여 이를 끌어올려 steam separator에서 증기와 무거운 마그마 액체를 분리하고 생성되는 증기는 터빈으로 보내져 발전기가 전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이 발전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료가 필요 없고, 배출물이 거의 증기밖에 없기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 낮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

기에 다른 신 재생에너지에 비해 지속적으로 생산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용화 되지 않은 이유는 산속에 있어 자연 삼림을 파괴한다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삼림에서 상당히 먼 부분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공학도로서 자연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느낀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가 탄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경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화석연료의 고갈 위험성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로의 변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번견학을 통해 일본이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즐겁다

Summer School을 통해 중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외국친구들과의 관계와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타지친구들의 다양한

사고를 접할 수 있었고 생각지 못한 지식들도 얻을 수 있었으며 새로운 문화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만난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많은 도움을 주며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함께

●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나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계를 줄이기 위해 외국프로그램방송을 보고, 외국친구들과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소통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집중을 하며 타인의 말을 듣다보니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속마음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경청하는 자

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

● 망설이는 분들에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참여 한 뒤 대학생활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스펙을 쌓기 위해 활동을 했다면 이후에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친구들과 타 문화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대외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발표도 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과정을 즐기면 친구도 사귀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셔서 대학생활의 활기를 찾기 바랍니다.



CAMPUS Asia Journal

Yao Suwei Peking University
 (Consortium: Seoul National University-Peking University-University of Tokyo)

우
수

Almost half of the autumn semeste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the first semester of Campus Asia, has gone. When looking back on those days from submitting my application to the program, to embarking on my overseas study for the first time, I feel so lucky. For me, the meaning of Campus Asia is far more than a simple chance for studying abroad, but rather an opportunity to apply what I have learnt i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into practice so as to deepen my understanding about regional development issues and broaden my visions in public interactions at social level among these three countries. Moreover, things learnt in everyday life in Korea

constantly renew my understanding about this country with regard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 its twisted history, its surprising culture and also its lovely people. I found myself more and more in love with this place, not only for its past somewhat kinship with my homeland China, but also its way of survival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relations currently.

In the following journal, I would like to share some of my experiences here in Korea and also some personal ideas about Campus Asia. Before that I prefer to make a brief introduction about myself.

Hi, I am Suwei from Peking University,

China. This is my first time to study abroad, and therefore things might be a bit difficult for me in the beginning, especially on account of the fact that I am totally an idiot about the Korean language! Anyway, thanks to my dear supporters and my fellow partners, I made it through the first month here, alive and in good condition! I am more than healthy and energetic for these days, and I kind of expect the days loaded with more Korean type of fresh things to come!

The following journal is generally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ly, the application for Campus Asia program and the first few weeks in Korea; secondly, things I have learnt in my life in Korea and Campus Asia; and thirdly, personal ideas on Campus Asia.

● **Before a Normal Life: Those Days in Upset**

The reason why I applied for Campus Asia is quite simple. Before submitting my application to the program, I am still deeply confused about my life in the future, and in those days, I just thought Campus Asia might be a good option for

me to tentatively escape from the realistic dilemma and the program might inspire me in some way or at least leave me more time to think about it. Of course, there are also some honorable reasons for my application, like enriching my ideas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cquiring deeper understandings about Korean society and Japanese society on patronage.

From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you might have some idea about what I was expecting from this program. My ideas in the beginning was actually a bit pessimistic. I was thinking that days here in Korea would be kind of boring, and in those boring days, I might have plenty of leisure hours hanging around aimlessly with my friends, searching for some information about job application and spending much time thinking about my hobbies and day dreams. I have neither imagined that preparation for upcoming cours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ould be somewhat time-consuming, nor there would be stressful push for improving my oral English to copy with daily communications and curricular presentations. Thanks to these unexpected trouble-

some situations, I was left in a mess for the first few weeks. In those days, I felt deeply frustrated, in the beginning, just for my not able to adapt to the Korean style teaching and learning, but later to a broader scale, for my incapable of managing my life well. I have to admit that I hated the life here in the beginning. I felt upset and had no idea how to get out of this big trouble. This was not the right situation as expected for my Campus Asia! I was overloaded with the heavy homework and English pressure, but had no time to think over my future alone!

For the first two weeks, I was busy with my fellow partners changing one another courses, trying to find the suitable ones to relieve our lives here, however, in vain. I was stressed out for so many English readings and presentations for each class, and in those days I had not fully got prepared for the new situation yet. Yes, life here in Korea was a trouble. I felt upset about the burden of learning and I felt frustrated with my stupid situation of not being able to talk to people in Korean away from campus.

The pessimistic atmosphere overwhelmed my life for complete two weeks. The thoughts of spending the whole semester in negative moods terrified me indeed. Therefore, in the beginning of the third week, I decided to give more strict reflections on my original plans made in my home country and also more reasonable thoughts on my future plans to adapt to the new environments here in Korea. There I found a serious conflicts between my original plan and the current realistic situation. I used to wish for more hours for “aimless” self-reflections, but in converse, the situation is that I have been pushed to do something in this program, such as taking lectures, participating in round table discussions and also many meaningful field trips with partners. I have to admit that modest pressure brought by the arranged courses and activities offered by the program benefits me more practically. By spending more time in readings and activity participations, I am more likely to form deeper insights into Korean cultures and also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myself especially in respect of my pros and cons.

Practice is always a better way for me to find the exact truths both about the surroundings and myself.

It is from this conversion of thoughts and attitudes, I tried more positively to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instead of making any complaints and escaping from the given situation. I rearranged my schedule, and more time is spent on preparations for courses and participation into various activities. The once unexpected schedules have now turned into my preferential decision, and this time I hold the initiatives for my life here. The conversion of thinking really makes a difference for me. Even though I still have some problems with my courses or something I can't well adapt to, I'm more determined and confident about my life here. Over the past one and half months, I have learnt a lot from the renewed plans.

● **Adaptation to the New Life: Things Learnt from Korea and Campus Asia**

In this part, I prefer to share some details and personal ideas about both Korean culture and Campus Asia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including study, daily life, and program.

1) Stud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 used to imagine the schools days her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ould almost be the same as the ones in Peking University. By saying so, I refer to, especially, the English level of native students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s i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o my surprise, for most of my registered classes here, the courses taught in English go smoothly and fast not only for the majority of foreign students but also for the native students who often perform well in English. What is more, students in GSIS are often required to give presentations individually or in group. This is one of the reason I felt stressed out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since I was not quite good at giving course presentations in English, and I felt even more nervous when compared with the presentations given by other foreign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Later I learnt from one of my supporters here that many Korean students were brought up in foreign countries and

Students here are quite accustomed to the courses taught in American teaching style in GSIS. This might be part of reason why many native students are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From this perspective I have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that the influence of America is far more than the historical domination in Korea, but far-reaching in many aspects of Korean life and culture.

2) Daily Life Here in Seoul

There are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such as pronunciation and traditional festivals between Korea and China. Benefited from the similar pronunciation, I often make correct correlations between the Korean pronunciations and the Chinese characters. For this reason, now I can almost manage my life out of campus by taking subways where I can find the stop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but always pronounced in Korean. Besides, I am so surprised by Koreans' way of celebrating the Mid-Autumn festival at the end of September. Mid-Autumn festival, a traditional festival for family unity, is celebrated by both

Chinese and Koreans. However, I have never imagined that Mid-Autumn festival is incredibly ceremonious for Koreans since many Koreans left Seoul city for their hometowns on those days. A majority of shops and restaurants were closed on Mid-Autumn day, leaving the Seoul almost in empty. This will not happen in China, even many Chinese take much count of this traditional festival.

Of course, there are even more differences in life between Korea and China. For instance, Koreans enjoy a plenty of activities and entertainments over the night. Many shops in Seoul run for 24 hours, and many young people hang out with their friends on night. As to China, people usually go back home before 10 or 11 pm and city streets are quite empty with not many people. Besides, I find that most of young girls in Seoul are very fashionable, with beautiful makeups, tinted straight hair and clothes in trend.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young girls in China, since Chinese girls look plainer and often casually dressed.

It is these similarities and distinctions

that attract me a lot. From this comparisons, I can find many historical clues shown in these phenomena such as the influence on Korean society and popular culture from China and America in different aspects and stages. The realistic life often reflects the country's development and national characters in a lifelike fashion.

3) Programs Held by Campus Asia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any forms of activities organized by Campus Asia program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uch as field trips, round tables and workshops. I love these activities, and I have learnt much about Korean culture from both teachers in charge of this program and my supporters.

In this journal, I want to introduce some of our activities, namely a field trip in Andong and a round table for example.

(Here is a picture of our Campus Asia group with actors in a mask performance in Andong)

Our first field trip took two days.



Across River Village (안동 하회마을), a small village where literati officials used to live and now kept in good condition of its primitive fashion, was our first stop. We walked around the whole village, which gave us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primitive lives of a traditional Korean village, and also watched a mask performance. The performance could be even greater if we have more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nguage, but still with the explanation from the teachers and our supporters, I could understand something about the

themes conveyed by the vivid performance. Later, we were arranged to live in a traditional house of Korean style. The rooms were clean and special, and we were asked to sleep on the warm floor. I felt so honored to live in such a place which I saw in Korean soap operas before, and it is indeed an interesting and meaningful trip for me.

This above picture is about our second round table of Campus Asia in GSIS. The round table was held at noon and therefore we were provided with fried chicken, which is truly a Korean style



delicacy. In a relatively relaxing and harmonious atmosphere, we started our discussion on a Japanese issue on Security-related Laws. During our round table discussion, students from Japan, Korea and China raised questions and expressed the opinions respectively. From this discussion, I learnt more about the current news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Preservation Legislation” and also some personal and meaningful ideas related to this topic from my fellows, which inspired me of the real effect and potential influence from the passing of Security-related Laws in Japan. I enjoyed this round table very much, not simply because of the crispy fried chicken but mostly because of the generously shared information and opinions.

By taking part in different activities held by Campus Asia programs, I have gained much knowledge about Korean culture. Besides, it is also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from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different issues, some covering politics while others about daily lives and customs. The group built by Campus

Asia program is a little bit like a family, with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but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Through all these activities, we try to know better about each other and show our respect to different cultures. The group itself provides a great platform for young people in Korea, Japan and China to express their ideas and show their talents.

● Final Words: Thinking over Campus Asia and Self-Expectation

The more familiar with the life here, the more passion and love for this program. For these days, I have done better with my courses and I can even spare more time on self-planning and self-discovering. I think this is really a good condition for me, and I have a real chance to find something both about Korea and myself at ease.

When thinking over Campus Asia, I think it is a good platform for better understandings about different cultures of Korea, Japan and China, and also for good communications among the young generations in these three countries. Due to complicated historical contradictions

and many present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between the three big powers in East Asia, the deep mutual understanding from a social level is still in shortage. However, the mutual endeavors to promote good relation among these three countries are necessary, and it is a mission for future generations like us to deepen the understandings about each other and promoting the interactions in both social level and cooperation in state level.

As to my personal goals for participation in Campus Asia, I have tried hard to figure out what I can do to live like a real person who assumes responsibility for social development while fulfilling

personal dreams. Here in Campus Asia, I think I have gained some knowledge about the situations in Korea and also learnt from ideas from fellow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but I am still not quite sure about my decision in the future. That is indeed a hard question for me, and I think I should probably learn more from the practice. Anyway, after more than a month of adaptation here, I have learnt more about my pros and cons, and also have gained more confidence in myself, which supposedly is a good start for me to think seriously about my personal development in the future.



장 려

- CAMPUS Asia 체험수기
- Korean Society and Culture
- My Life in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
- 칭화대 SPPM 여름학기 교환 프로그램 후기
- 동아시아에의 대항해로 이끄는 빅뱅
- 중국의 쓴 맛, 한국의 매운 맛, 나의 조미료
- ESSAY for CAMPUS Asia 2015
- 유럽에 에라스무스가 있다면, 동아시아에는 CAMPUS Asia가 있다
- 행운이 가득했던 도쿄, CAMPUS Asia 프로그램





장려

CAMPUS Asia 체험수기

하지윤 성균관대학교

(사업단: 성균관대-길림대-오카야마대)

저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년간 중국 길림대학교에 파견되었고, 2015년 2월에는 일본 오카야마 대학교에 파견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와 함께한 1년은 저의 대학생활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소중한 청춘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한 층 성숙해진 저는 중국과 일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게 되었고, 몸은 떨어져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는 지음(知音)이 생겼습니다.

● 거대한 숲과 안경쟁이 소녀

숨 막히도록 거대하고 아득한 숲, 저에게 중국은 숲이었습니다. 감히 용기 내어 밟지 못할 수 없는 어두운 숲의 나라. 이것이 대학생이 된 제가 느꼈던 중국이었습니다. 숲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저의 눈에 감디검

은 안경을 씌웠습니다. 스스로 제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명동 거리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귀 따갑게 큰소리로 외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중국인들, 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그저 남이 해주기만을 바랐던 중국인 유학생, 뉴스에서 들려오는 중국의 각종 문제들은 거대한 숲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틀리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색안경이 아닌 투명한 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했고 중국에 대한 저의 편견과 선입관은 더욱 두껍게 쌓여만 갔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를 만나기 전, 저는 그저 스스로 제 눈을 가린 안경쟁이 소녀였습니다.

● 숲으로 내딛은 첫발, 벗어던진 색안경

길림대학교 장기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으로 파견된 그 날부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던 색안경을 벗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눈으로 바라보고, 중국과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신경써주시는 선생님, 언어 교환을 위해 만나기 시작해 함께 요리도 하고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었던 길림대학교 친구들,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는 물론 우리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해주었던 기숙사 근처 식당 아주머니, 매번 홍시 하나, 꿀 하나씩은 더 얹어주었던 과일가게 아저씨, 기차여행 중 만나 사과를 깎아주시며 당신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할머니 등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마침내 스스로의 눈을 가렸던 안경을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색안경을 벗은 저의 눈에는 숲의 싱그러움과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햇빛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차갑고 어두운 숲이 아닌 매일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포근한 숲이라는 것을, 장춘의 깨끗한 공기를 깊숙이 들이쉬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숲에서 나의 청춘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중국에 막 도착했을 무렵에는 “밥 먹었어요?”밖에 할 줄 몰

랐던 저는 숲의 온기를 더욱 깊이 느끼고자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堅持到底’를 되뇌며 어디든 연필과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간판, 메뉴판, 물건 이름 등 새로운 단어가 보일 때마다 행여 잊을세라 재빨리 적고, 사전을 가지고 다니며 외우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받아와서 단어 공부를 하고, 언어 교환을 하고 싶다는 전단지들 만들어 중앙 도서관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력은 빛을 발하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 선생님이 말하는 중국어가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렸을 그 때의 기쁨과 벅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매일 새로운 다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떤 때보다도 값졌습니다. 길림성정부에서 주최하는 “国际友人看吉林”主题采取活动에 《在吉林，每一天都是阳光灿烂的日子》라는 글로 기고하여 우수상을 수상했고, 학기 초에는 성적이 가장 낮았던 제가 반 전체 1등으로 첫 번째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두 번째 학기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해 주었습니다. 유학생들끼리 수업을 들었던 첫 학기와는 달리 길림대 경영학과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부터 경영학과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전문용어뿐

아니라 동북지방 방언, 현지인들의 관용표현과 유행어 등을 스펠치처럼 빨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길림대학교 경영대학 동아리 Enactus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 학생들과 함께 경쟁했던 경험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백 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외국인은 저뿐이었습니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첫 면접을 보고, 1차 면접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틀 후 소그룹 토론 면접을 보았습니다. 중국어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기에 어떤 면접보다 떨렸지만 차분하고 조리 있게 제 생각을 개진해나갔습니다. 두 차례의 면접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만, 외국인임에도 똑같이 중국어로 중국인들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나 긴장했던 탓에 면접이 끝난 후에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합격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울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대학교 선생님들께 건의하여 한중일 학생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첫 학기에 각 나라의 유학생들과 친구로서 자유롭게 대화할 기회는 많았지만 하나의 현안에 대해 각국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

웠습니다.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선생님께 이를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는 학생 포럼이니만큼 모든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일본 친구들과 만나 한자문화라는 주제로 포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 함께 준비한 포럼이 개최되었을 때 각 나라의 한자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러한 한자문화를 세 나라가 어떻게 함께 보존해나갈 것인지 토론하면서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만난 지음(知音)

중국에 도착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듣고, 중국인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听不懂, 看不懂”의 반복이었고 조금하고 막막한 마음에 허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때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일본 오카야마 대학에서 캠퍼스 아시아로 길림대에 함께 파견되었던 친구들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중국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을 때, 일본 친구들과 매일 만나면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힘내!”라는 말보다는 “나도 그래”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긴 유학생활 중 겪었던 크

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평일에는 일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중국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박물관과 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일본 친구들과 요리를 하면서 서로에게 ‘정통’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다시금 떠올리곤 합니다. 제 생일에는 일본친구가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주면서 “생일 축하해!”라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축하해 준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납니다. 캠퍼스 아시아 일본과 한국 학생 10명이 함께 대련으로 여행을 갔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찍었던 우리들의 사진을 다시 볼 때면,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함께 웃었던 소소한 추억거리들이 마음속에 한줄기, 또 한줄기 피어올라 그리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면, 서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중국인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중국어가 서툴렀을 때에는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가 조금씩 알고 있는 한국어 혹은 일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가까워지면서 언어의 장벽을 느꼈

던 적은 없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에게 크나큰 의지가 될 수 있었기에,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너무나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지음(知音)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2월,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오카야마대학교에 단기로 파견되었을 때 일본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재회하면서 오랜 시간 떨어져있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만큼이나 기쁘고 벅찼습니다. 가장 친했던 일본 친구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호떡 재료로 함께 호떡을 만들고,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간식들을 먹으며 따뜻한 다다미 방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다미 방의 온기만큼이나 따뜻하게 느끼게 해준, 또 다른 청춘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 非常感谢,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캠퍼스 아시아!

캠퍼스 아시아는 검은 안경쟁이였던 제가 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국적을 뛰어넘어 인생의 지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보냈던 1년이라는 짧지만 길었던 시간동안 무엇이 나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열정과 야망을 가진 대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준 캠퍼스

퍼스 아시아가 있음에 감사하며, 저는 매일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순간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2015년 1학기, 캠퍼스 아시아 친구들과 함께 대련에서



2015년 2학기, 캠퍼스 아시아 한자문화 포럼



2015년 2월, 일본에서 재회한 지음과 함께



2015년 2월, 오카야마대학 단기연수



장려

Korean Society and Culture

- My Life in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

Waka Ishikawa The University of Tokyo
(Consortium: Seoul National University)

● **First Impression: Before and After**

Becoming an expert of Japan–China relationship had always been my dream, ever since I discovered the meaning behind my name (和–Japan, 華–China) and learned that I was born in Beijing. After my study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where I studied as an exchange student for one year and learned intensely about China through friends and academic courses, I decided apply for the Campus Asia Program to further deepen my knowledge regarding Japan–China relationship. At that point, my impression toward Korea was no more than “a small

neighbor country of Japan”—even worse, I was beginning to acquire a somewhat negative view toward Korea due to the reported news by the Japanese media regarding “anti–Japan” movements and sentiments among the Korean public. Thus, when I found out that my application for the SNU dormitory had not been accepted due to miscommunication—and that I had no choice but to live in an apartment near SNU station all by myself—my honest feeling was, “how could I survive in such an “anti–Japan country”, especially when I cannot speak Korean at all?” Thus, my motivations toward study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ropped to the

lowest at that moment, leaving only the feeling of fears and concern behind for the upcoming exchange life in Seoul.

After one month of stay in Korea, all my concerns and fears proved groundless; most people that I have met were surprisingly nice and friendly, whether be on campus or outside of campus. When I was lost in Myeongdong(明洞) and kept on staring at the map in my Japanese guidebook, a Korean man who seemed to be an office worker kindly approached me in Japanese and showed me the way—even offering me his umbrella since it was raining that day. I also discovered that many Korean students (especially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ossessed a deep knowledge and interest toward Japan, in which some of them could even speak Japanese fluently. Back in Tokyo, I rarely met a Japanese person who could speak such fluent Korean or who had that much curiosity toward Korea. In fact, most of the Japanese people that I knew back in Tokyo either possessed a somehow negative impression toward Korea or had no interest at all—the newspapers and books often portrayed Korea

as “troublesome” and “irrational” country, for the reasons of historical conflict and territorial disputes.

After interacting with many Korean friends, I became embarrassed of my previous biased image of Korea, and discovered that I had been seeing Korea only from a limited perspective. I realized that it was not only the Koreans who did not understand Japan well; rather we the Japanese did not know or made any effort to learn and know more about Korean people and society. I believe learning and knowing about each other is the first step in building a good relationship—as neighbors, it is important that more Japanese be interested in studying in Korea as Koreans are interested in learning Japanese and Japanese society.

● Taking Courses: Knowing the Korean Perspective

For the Spring Semester 2015, I took the following three courses: “Understanding East Asia”, “Semina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1—War and Peace”,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Simulation

Game”. All three courses were stimulating and insightful, but if I were to pick one, I would choose “War and Peace” taught by Professor Sheen—which for me was the most mentally challenging one as well as the most interesting and stimulating one. It was very interesting as many of the opinions spoken by the Korean students were new to me, and therefore gave me the motivation to study more about the Korean perspectives.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mentally challenging as many of the opinions were related to criticism toward Japan, which I gradually came to understand as I learned the perspective of Korea.

Before taking this course, I had always wondered why Korean people concern so much about the past history when decades have passed from the war. Just as the way the majority of Japanese thinks, I had a belief that such “anti-Japanese sentiments” were superficial and intentional—that Korea was using the history as a diplomatic leverage to get advantage over Japan. Through the lectures however, I gradually understood that “anti-Japanese sentiments” has come

from the victimization narrative, a sentiment of victimization that has existed within the Korean society—which was comprised by cultural, educational and historical factors. For the cultural factor, I learned that Koreans believe in “collective responsibility”, meaning that what one member of the group do will affect the entire group. While the concept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also exists within Japanese society, hearing the opinions of the Korean students, I felt that its presence is stronger among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ical factor, I was really shocked when one of the classmates mentioned that inside of their true feelings, Koreans would actually want Japan to apologize for the invasion committed by Hideyoshi Toyotomi. At first, I could not understand even a bit why Koreans would want an apology for Hideyoshi’s invasion from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when Hideyoshi and the current government is totally different and has no connection whatsoever. After asking for details, however, I learned that while in Japan the Hideyoshi’s invasion and colonialism

belongs to the different era (the regime has changed completely), in Korea both invasions happened under the same Joseon Dynasty, thus in Korea it was natural to regard the two incidents as linear and connected. After hearing and learning Korea's perspective regarding culture and history, I came to understand that Japan and Korea have been seeing the history from the completely different angle. I felt I could understand better for the reasons behind Korea's insistence on history, and would be less shocked and less offended next time I see anti-Japanese sentiments on the news. Also, I strongly felt that more Japanese should learn about the factors behind the sentiment of victimization,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toward Korea and to nurture tolerance within the Japanese society.

● Social Life: Amazing Korea

Of all th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Campus Asia Program was the wonderful fieldtrips—in which we got to see the amazing places of Korea. For the Spring Semester 2015, we had two major field

trips to Jeonju and Jeju Island. In Jeonju, we exchange students experienced making our own Kimchi—with fresh vegetables, and ate the Korean cuisine Bibimbap as Jeonju is the origin of Bibimbap. The Jeju Island was just amazingly beautiful, with full of green and refreshing air.



[Both photos taken in Jeonju]

● Tips on Living Abroad

My advice to you...be open minded, and try to participate in as many events as

you are invited. Also, do not decide your impression based on living just a week or two—wait at least one month to judge, as it will (on average) take one month to settle down in a new environment. For me, the first month was the toughest time—new language, new people, new food—everything was new that I became overwhelmed by what I went through everyday. It was after one month that I

started to enjoy the new environment and new life...do not worry, you will definitely like it once you know your way ☺.

Campus Asia is a wonderful program for anybody looking for adventure and excitement—whether or not you like the three countries is not a big issue, as you will definitely love them once you get to know.



장려

칭화대 SPPM 여름학기 교환 프로그램 후기

윤충환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단: KDI 국제정책대학원-칭화대학교-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GRIPS))



장
려

● 강의 후기

여름 교환학기의 강의는 주로 교양강의 정도의 내용과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이번 교환프로그램의 전반 2/3를 차지한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둘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7.29. Steven White 교수의 “China’s ongoing transition” 강의이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White 교수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중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를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보여 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기원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1-2008 AD) 세계GDP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며 1,800년대 이전 명·청시대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5,000년의 긴 역사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성장이 아닌 조선 초,중기의 세종대왕과 그 이후 정조대왕 통치시기까지의 1,800년대 이전의 전성기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1997년 겪은 외환위기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복한 것과 같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후 50년 만에 이루어 낸 경제성과는 우리민족 5,000년 역사의 흐름과 발전의 방향성을 고려해 볼 때

잠시의 위기를 극복한 당연한 귀결로 볼 수도 있다. 이를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하고, 정치인의 지도력, 새마을 운동, 의무교육, 과학기술 투자,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성공요인으로 구분, 분석하여 역사적 고찰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인 양 우리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홍보하는 오류는 앞으로 고쳐야 하겠다. 또한 긴긴 세월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다져온 인적, 문화적 저력과 끝없이 발전해온 우리역사의 발전 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해 본다.

중국의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을 인도와 비교하여 보여준 점 또한 인상적이었다. 인도의 타타자동차의 나노(Nano)는 단돈 \$2,500이며 이는 인도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와 견줄만한 가격 수준이다. 이는 2003년 인도 뭄바이 도심의 비내리는 저녁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회장이 스쿠터 한대에 위험하게 엉겨 탄 서민층 일가족 4명이 빗길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으로 나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스쿠터 한대 가격에 살 수 있는 국민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되었다. 인도의 기업들은 이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다수의 인도인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상하이 모터스는 독일 명차를 경쟁모델로 로워(Roewe)라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겨냥한 대형세단을 최소 \$25,000을 넘는 가격에 만들어서 팔고 있다. 또한 인도의 Aravind Eye Care Centre는 \$50(\$2,000 in U.S)의 혁신적으로 저렴한 눈 수술비용을 제공하고 다른 의료서비스 분야로의 저렴한 진료비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충분한 공공병원서비스 공급을 제공하지 않아 서민들과 가난한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권을 제한시키는 반면, 성형수술 같은 고비용의 선택적인 VIP 서비스가 중국의 건강증진 산업의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인가에 물음을 던짐으로서 중국의 경제성장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국 국민들은 모택동의 공산당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 시켰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렸고 중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1970년대말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따르다 보니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Field trip 중 밉보(孟波)교수님과 같은 테

이블에 식사를 하게 되어 중국의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께 여쭙어 보았다. 지금의 시진핑 세대는 현재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세금징수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및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의 IMF는 소득 불평등은 중장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중국의 현재의 불평등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평등이 핵심인 공산당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중국 공산당에게는 등소평 이후 과도하게 편향된 자유시장주의 개혁 개방정책 방향을 다수의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와 균형을 맞추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강의는 8.11일 북경대 Anshan Li 교수의 “Sino- Africa Relationship and Africa’s Development”였다. 중국의 국제협력 및 대외정책의 원칙과 방법을 통해 국제원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기존의 서구형 원조 방식은 서방은 공여자로 생색을 내고, 아프리카는 수혜자로서 순종적이 되는 갑을관계를 형성하였다. 지원국은 조건에 기반한 원조 제공으로 수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원국은

언제나 설교자로 행세하길 원했고, 그들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원조는 수혜국들에게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는 것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4대 대외 정책 원칙인 “1. 평등과 상호존중, 2. 상호주의와 동반성장, 3. 정치적 불연계와 내정 불간섭, 4. 자립 능력의 중시”를 통한 지원이 아닌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성장을 돕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이유로 중국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제국 열강들로부터 식민지배의 굴욕을 당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우호적 국제관계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큰 밑천이 되고 있다. 베이징이 하계올림픽 개최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는 걸 보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중국이 계속해서 평등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꾸준한 성장을 이뤄, 현재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파워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찰국가를 자칭하며 내정간섭은 물론 전쟁도 불사하는 미국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은 국제분쟁에 있어서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주권을 존중하는 중국의 대외 정책을 한 수 배워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에 발맞춰 우리의 외교 정책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만 의존하기 보다

는 오히려 오랜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를 가진 최대의 경제협력국인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강의는 학생들의 경제 발전과 정책에 관련된 PT로 구성된 세미나 형식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자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개 하였다. 한국학생은 대표로 2명만 발표를 하였고, 내가 그중 한 명 이었다. 나는 KIST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였음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100위엔 지폐 속 마오쩌둥과 우리나라 지폐만원 속의 세종대왕을 번갈아 보여주며 우리국민들이 세종대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당대의 높은 과학, 기술뿐 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등을 소개 했다. 40명이 약 5분씩 무려 4시간에 걸쳐 발표하다 보니 중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도도 떨어지고 대부분 내용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진과 그래프가 풍부한 전문가가 작성한 KIST자료를 활용한 나의 발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었고, 발표 후 몇몇 학생들은 만원 짜리 지폐에 관심을 보였고, PT자료를 이동식 메모리에 담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훌륭한 발표였다는 인사를 교수님과 학생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어, 영어 PT 준비하느라 나름 고



생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Field trip 후기

베이징 -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류저우-썬장) - 상하이 -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광시좡족자치구의 계림공항까지 비행시간만 3시간이 걸렸다. 중국이 넓다는 말을 새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저우에서는 산업시찰로 최근 개통된 고속도로를 버스를 타고 돌아보고, 건설경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Field trip을 후원하고 주관한 MCC(중국의 건설 공공기업)가 건설한 도로였다.

류저우시에서는 산업시찰로 제철소와 자

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제철소에서는 냉간 압연 강판공장을 둘러보았다. 자동차공장은 GM과의 합작으로 설립되었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기업인 도요다의 전 세계 생산량과 맞먹는 수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제철소의 풍부한 강판생산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리라 예상했지만 밍보 교수님으로부터 류저우의 제철소가 생산하는 강판은 품질이 떨어져 인근의 자동차 생산에는 쓰이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가 고성능 강판을 포스코가 아닌 신일본제철에서 수입해서 쓴다는 이야기가 새삼 떠오른 대목이었다. 류저우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년간 머물렀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이였다. 류저우의 도시계획전시관에서 도시역사에 대한 자료를 관람하던 중 임시정부 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광저우 총영사가 임지에 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명보교수님의 배려로 한국 학생들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람시간이 지나 창을 통해서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 데서 만족해야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국 땅 남쪽 끝자락까지 떠돌아 다녀야 했던 애국지사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절로 숙연해졌다.

싼장군은 우리나라의 군에 비해 규모가 컸다. 호텔이 있는 싘장의 중심부에서 동족마을까지 가는 길은 공사 중이였다. 비포장에 비까지 내려 위아래 좌우로 요동치는 버스 속에서 가슴을 졸여야했다. 하지만 어렵

게 도착한 동족마을 방문은 아주 좋았다. 마을아낙으로 부터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백가연(百家宴)으로 불리는 마을잔치에 초대 받았다. 백가연은 말 그대로 백개의 가구가 여는 잔치로 각 가정에서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마을회관 마당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마을축제였다. 동족의 다양한 가정요리를 맛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다시 비포장 공사길을 달려 산장군으로 돌아와 동족문화공연을 관람하였다. 뮤지컬 형식의 공연은 대규모의 공연장과 여러 가지 조명, 특수장치 등으로 지방소도시





의 공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보는 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상하이로 가기 위해 계림공항에서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으로 2시간여를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은 혼잡하기로 유명하고, 우리는 착륙 후에도 족히 1시간 이상을 비행기 안에서 대기해야 했다. 가이드에 설명에 따르면 상하이는 중국에서 인구수로는 충칭시 다음으로 크며 2,300만 정도가 살고 있다. 유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3천만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상하이는 고층건물 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며, 40층 이상의 건물이 2,000개 이상이고, 상하이의 고층건물의 대부분이 198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상하이는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경제를 대변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는 상해 Finance office, 공무원교육원, 박물관과 도시계획전시관을 방문 하였다. 우



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가 있는 상하이 세계금융센터의 전망대에 올라 상하이 시내를 조망하였다.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고속철을 이용했다. 중국인들이 까이티에(高鐵)라 부르는 고속철은 상해에서 베이징까지 5시간 30분이 걸렸으며, 최고 운행속도는 300km/h 로 우리의 KTX와 비슷했지만, 차체의 폭이 넓고(5열 좌석) 높이가 낮아 안정감과 승차감은 더 우수했다. 특히 출발시의 부드러운 가속은 창밖을 보지 않고서는 차량의 이동을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Field trip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흑인친구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었다. 아마 평생 처음으로 흑인들을 만났을 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나, 한달 가까이 매일 보다시피한 나로서는 재미있게 느껴졌다. 국제도시인 상하이에서조차도 흑인친구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들지 않았다. 남수단에서 온 친구는 2m의 신장 덕분에 많은 중국팬들을 거느리고 이동했고, 사진을 같이 찍어주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Field trip을 통해 넓고, 다양한 중국을 체험할 수 있었다. 자동차도 들어가기 힘든 시골 오지에서부터 고층빌딩이 즐비한 상하이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방식 문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은 13억의 인구에 우리나라의 96배에 달하는 국토를 자랑하는 만큼 내가 본 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의 평균적 의식수준은 아마 우리나라의 10~20년 전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다던지 길거리에 조그만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모습, 관광지에서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 하는 모습 등에서 쉽게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연수단의 버스추락사고와 텐진항 폭발사고 등을 접하면서 중국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세월호 참사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Field trip은 일정은 보통 오전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 11시 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었다. 첫날공식일정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였고, 6시간 이상을 버스에서 보냈다. 그리고 일정도 1시간에서 2시간가까이 늘어나기 까지 해서 피로감을 더했다.

중국이 워낙 넓고 8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득이한 면도 이해는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동시간 지연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불편은 미리 예상하고 와야 여행일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칭화대학교에서의 교환프로그램은 저명한 교수님들의 강의와 산골오지에서부터 대도시까지의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Field trip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비록 한 달 동안의 짧은 외국생활이었지만 가족과 집의 소중함도 느껴보았고, 작년 기숙사에서 밥을 직접 해먹던 외국인 친구들의 처지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칭화대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칭화대 SPPM에서 운영하는 IMPA프로그램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지만, 중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건 상당히 아쉬웠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도 여름학기 중첩에 따르는 강의 조정에 공식적인 도움이 전혀 없어 출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낮은 국제적 인지도에 대해서 실감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의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기업으로 알고 있었고, 한

국 기업임을 말해주자 모두들 놀라워했다.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많은 외국 친구들에게서 중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을 수시로 받았고,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들 했다.

반면, 몇몇 나라에서 온 친구들로 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흥해를 끼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트리아 관세청에 근무하는 분으로부터 경남기업의 에트리아에서의 활동에 대한 극찬을 들었다. 그는 중국기업과 경남기업의 시공능력과 품질을 비교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또한 내가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소식을 들려주자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만약 그가 에트리아로 온다면 나라에서 무덤을 만들어 줄 거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동티모르에서온 가마라는 친구를 통해 또 한번 끈끈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가마는 field trip 동안 스스럼없이 먼저 다가와 한국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했고, 잘 아는 사람처럼 우리들을 친근하게 대했다. 그리고 파병된 한국군의 동티모르에서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찬사를 보냈다. 이 글을 빌어 해외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하시는 모든 한국인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머무

는 동안 우리를 친절하게 잘 보살펴주신 명보교수님과 제니, 샤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출발준비]

● 준비물

베이징의 무더운 여름에 대비하여야 한다. 햇볕이 강할 뿐 아니라 바람 한점 없이 무덥다. 양산겸용우산, 여름용 긴바지(남성 기준)로 더위에 대비하고, 얇은 가디건을 준비해서 강의실과 버스 안 냉방시 Field Trip시 날씨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체류비용

비용은 환율 200원/1위안 기준으로 약 4,000위안 정도면 적당하다. 100위안짜리로 미리 환전할인이 많이 적용되는 주거래

은행에서 바꾸길 추천한다. 나의 경우처럼 공항에서 바꿀 경우 두 배 이상의 환전수수료를 내야 한다. 4,000 위안(80만원) 기준으로 보면 4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필드트립을 제외하고 20일 가량을 북경에서 지내기 때문에 호텔 조식을 제외하고 점심, 저녁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의 주말을 보내기 때문에 베이징 시내와 외곽관광에 따르는 교통비(지하철, 택시, 버스), 관광지 입장료 등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생활]

● 언어

“워 쓰 향구오 런”(저는 한국사람입니다). “팅 부 동”(못 알아듣겠어요). 이 두 가지 말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식당에 가거나 택시를 탈 경우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중국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 할 경우 더 큰 목소리로 중국말을 한다. 그러니 일단은 한국 사람임을 밝히고, 그래도 계속 중국어를 한다면 못 알아듣는 걸 알려 줘야 우리가 손짓 발짓을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자신들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눈치 빠른 사람을 데려온다. 일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

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아주 운이 좋은 경우 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한자(간체자)를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영어 또한 지금은 교육과정에는 필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 10여년 전 대학시절 초급 중국어를 한 학기 교양과목으로 이수해서 아주 기초적인 중국어는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긴 했지만, 10년이라는 유통기한 지난 어학 공부는 중국 현지에서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진 못했다.

● 통신

체류기간이 약 1달이므로 중국에서 현지 유심칩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다. 중국체류기간 동안 일행들과의 연락을 위해서도 최소 2~3명은 현지 유심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우리 팀은 3명이 현지유심을 구입해 사용했다. 윈진호텔의 경우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는 속도와 커버리지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지유심을 구입할 경우는 차이나 유니콤을 이용하길 추천한다. 중국의 최대 시장점유자인 차이나 모바일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기와 통신방식이 달라 전파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신사에 대해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현지에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길 바란다. 또한 만약 국내의 전화가 고가요금제인 경우 한국번호는 미리 사용중지 시키는 것도 좋은 절약 방안이다. 중국을 떠날 때는 유심도 해지를 하는 것이 좋다. 해지는 일반대리점에서는 안되며, 차이나유니콤은 Tush Park 빌딩 내에 있으니 잘 알아 두고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카카오톡인 WeChat을 꼭 출국전 다운받아 가기 바란다. 외국친구들과의 소통에 필수적이고 유용하다.

● 교통

지하철 : 베이징의 경우 대중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다. 웬진호텔에서 버스로 2정류장 거리에는 오도구(五道口 우다커우)역이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1회 사용요금은 5위엔 이고 먼 거리는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오도구역에서 베이징 중심인 천안문광장 동역과 서역은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모든 지하철 역에서 판매하고 20위엔의 보증금에 30위엔 정도 충전해서 쓰면 적당하다. 단 귀국 때 교통카드를 반납할 때는 지정된 전철역에서만 가능하니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우리일행은 결국 반환하지 않고 외국친구들에게 건네주었다. 중국의 지하철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승차 전 보안검색을 한다. 신장위그루자치구, 티벳 등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방에 물이 있을 경우 보안 검색원이 물을 마셔보라고 요구한다. 중국어가 익숙지 않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지품에 있는 물을 마셔 보이면 된다. 이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박물관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경험할 수 있다.

택시 : 베이징 시내 관광 시에는 택시 이용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지하철 이용도 가 능하나 베이징의 중심인 천안문까지는 10정거장 이상 소요되고 2번의 환승을 하여야 한다. 여름이라 날씨도 더워 자칫 관광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체력이 바닥나 도착 후에는 제대로 관광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기본요금은 13위엔이고 호텔에서 천안문근처까지는 시간은 30분 내외 요금은 40~45위엔 정도다.

버스 : 버스는 한번 승차에 교통카드 1위엔(현금 2위엔)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2층 버스, 굴절버스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들이 다녔지만, 노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해 보진 못했다.

● 음식

중국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서양에서 큰집과, 동양인 부인, 중국인 요리사를 두는 것, 이 세가지가 성공한 남성의 기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중국요리는 앞에서 언급한 서양남자들의 입맛을 의심할 정도였다. 물론 모든 음식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입에 맞는 음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짜거나, 기름기가 많고, 향신료 냄새가 강했다. 결국 메뉴판이나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음식을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시킨다면 그 맛은 자신의 예상과 30%도 맞지 않고 반 이상 남기기 일쑤다.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만, 여름철 영양보충을 위해서는 최소 1끼는 검증된 음식이나, 오도구역 인근의 한국식당에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베이징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국음식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맛보고 갈 수 있다. 특히 field trip 기간에는 호텔조식을 제외한 점심, 저녁을 계속 중국 현지식을 먹게 된다. 중국인들은 찬물을 거의 먹지 않는다. 식사 때는 건강을 위해 뜨거운 물이나 차를 마신다. 식당에 가게 되면 맥주나 음료를 시킬 때도 찬(冷)걸로 시키지 않으면 미지근한 맥주를 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 관광

우리팀은 시내관광은 자유여행을 했고, 이화원을 시작으로 용경협, 팔달령장성으로 이어지는 시 외곽관광은 10만원(500위엔)을 들여 여행사(하나투어)를 통해 패키지 투어를 했다. 베이징 관광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13억 인구의 관광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내 관광객이고 그 수도 어마어마하다. 가이드 말에 따르면 만리장성은 모택동이 사나이 대장부라면 만리장성에 한번은 올라보아야 한다는 말을 한 이후로 모든 중국인들이 한번은 올라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했다. 고로 만리장성에 오르려면 수많은 중국인들과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한다. 10~20분 남짓 만리장성을 밟기 위해서 1,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 이었다. 시내관광은 천안문, 국립박물관, 경산공원, 수도박물관, 북해공원, 스키하이 거리, 통먼, 서커스 등을 관람했다. 서커스 등 공연 관람은 여행사를 통하면 단체관람티켓을 끊어 50%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 할 수 있다. 시내관광 첫째 날은 지하철을 이용했고 천안문과 국립박물관을 둘러보는 데만 무려 17Km를 걸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시내관광은 발관광이라고 한다. 둘째 날은 경산공원과 수도박물관, 셋째 날은 북해공원과 스키하이 통먼을 둘러보았다. 여행책자를 가지고

찾아다녔는데 전문 가이드의 설명이 못내 아쉬웠다. 그나마 운 좋게도 우리가 관광했던 기간이 날이 흐리고 비가 와서 그나마

관광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에 머무르는 20일 기간의 대부분은 30도를 넘는 고온으로 대부분 호텔에서 보냈다.



정 력



장려

동아시아에의 대항해로 이끄는 빅뱅

Toyama Miyu Ritsumeikan University

(Consortium: Dongseo University-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y-Ritsumeikan University)

내 21년의 인생에서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동아시아의 대항해로 이끄는 빅뱅”이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의 나에게서는 중국과 한국은 미지의 세계였다.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말도 문화도 역사도 모르는 낯선 이웃 나라였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고 반일적인 사람들이 있는 줄로만 알아서 발을 들여 놓으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눈을 닫고 있었던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빅뱅이 찾아왔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이다. 원래 영어권 교환학생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한번 밖에 없는 대학생활이니까 아무도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것에 도전하고 기억에 남는 짙은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중일 30명의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나라의 언어, 문화, 역사를 배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12년 8월에 1주일씩 3개국에 체재하는 캠퍼스아시아 쇼트스테이에 참가하고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동년대의 중국인, 한국인을 만났다. 서로 아직 말도 잘 통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곧 터놓을 수 있었다. 특히 중국, 한국 친구들이 매일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관광명소에 안내해주고 가능한 한 일본어로 설명하려고 해준 모습이나 요리가 입에 맞는지 배려해준 것이 너무 기뻐서 감동받았다. 3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이가 깊어지고 귀국할 때는 오열하고 이별을 아쉬워했다. 이 여름의 만남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아마 중국이나 한국과 관계할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캠퍼스아시아라는 동아시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빅뱅에서부터 나의 대항해는 시작되었다.

2013년 2월부터 드디어 3개국을 급속히 이동하는 2년간의 유학생회가 시작되었다. 이 2년간의 공동생활을 돌이켜보면 서로 협력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했던 것, 밤늦게까지 그룹 발표준비에 몰두했던 것, 다투기도 하면서 같이 share house에서 살았던 것, 지금 기억나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에서 30명이 같이 share house에서 가족처럼 생활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인 추억이다. 나라가 다른 30명이 같이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처음에는 걱정하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툰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식사 후의 청소 방법이 달라서 한 중국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다. 나는



접시를 세제로 충분히 씻는 편인데 그 친구는 간단히 씻는 편이어서 차이가 있었다. 나는 조금 결벽증 부분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잡하게 씻으면 안돼! 다른 친구들도 쓰는 식기니까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라고 강하게 주의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별로 안 더러워졌으니까 간단히 씻어도 괜찮아.”라고 해서 나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더라도 일본에서는 안 좋아!”라고 반론하자 그 친구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나중에 다시 생각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해버렸다고 후회했다. 자기 기준을 일본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의 기준을 중국인의 기준이라고 단정해 버리고 말했다. 그 친구에게 서둘러 사과하자 그녀는 “중국인에 대해 미유가 오해하고 있다고 걱정했지만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나

도 미안해, 앞으로 더 배려해야 하네.”라고 해서 우리는 화해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곧바로 상식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의견을 잘 듣고, 개인으로서 마주 보는 것이다. 자기 상식에서 빠져 나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체감했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해 내 인생이 제일 변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깊이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마음 깊은 친밀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곧 중국과 한국 친구들의 얼굴이 기억나고 너무 걱정이 된다. 일본에 있어도 중국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주 기억나고 오늘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한국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였다. 그러나 약간의 호기심과 용기로부터 내디뎠던 한 걸음에서 돌도 없는 한중일의 친구들과 연결되는 연대가 생겼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연대는 앞으로도 동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세계로 넓히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한다.

나는 중국, 한국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3개국을 이동하는 사이에 각국의 생활습관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장래는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된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라나 지역이 다르면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나 사상도 다르다. 그러한 문화의 차이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마주보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용품 메이커회사에 취직했다. 내년 봄부터는 영업 woman이 되고 물건 제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고객을 연결하는 소중한 일을 맡게 된다. 그때 꼭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에서 배웠던 “자신의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시야를 넓게 갖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행동하는 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에서 일하는 데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다양한 지역이나 나라의 풍토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중히 하고 싶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의 고객에게도 사랑 받는 일용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내 다음의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제1기생으로 참여하고 느낀 문제점은 “조금 폐쇄적인 환경”이었던 것이 없잖아 있었다. 보통의 교환유학과 달리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학생은 참가 학생만 같이 보내는 수업과 시간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 그래서 유학을 하고 있어도 캠퍼스아시아 학생 이외의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가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더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가 학생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여러 나라 학생과 함께

그룹 워크를 하는 수업을 도입하거나 홈스테이 체험을 도입하면 더 널리 현지 사람들과 문화와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선 한중일의 일반 사람들도 널리 알게 되는 것으로 한중일 관계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발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수단으로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언론 매체와 프로그램 참가자의 체험담과 사진을 펴낸 책을 출판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1만명을 넘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 알고 싶어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세계로 발신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이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연대는 굽고 넓게 펼쳐진다. 제1기생으로 참가한 우리가 타고 있는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는 작지만 끝까지 전력으로 계속 젓던 배였다. 이제 다음 배를 더 넓고 큰 바다로 이끄는 파도가 오고 있다. 캠퍼스아시아 빅뱅은 이제부터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장려

중국의 쓴 맛, 한국의 매운 맛, 나의 조미료

Maruyama Sayo Ritsumeikan University
(Consortium: Dongseo University-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y-Ritsumeikan University)

나에게 캠퍼스아시아는 내 인생에 맛을 내는 조미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무 맛도 안 나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에게 쓴 경험이나 즐거운 추억을 남긴 캠퍼스아시아는 내 생활에 다양한 맛을 낸 것 같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1학년 때의 크리스마스 날 나를 포함한 학생 4명이 중국 상해로 향했다. 중국 광저우에서의 유학을 앞두고 중국 생활, 중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상해에 있는 재경대학교에서 5일 동안 집중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 상해 생활이 중국에서 처음 맛본 쓴 맛이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와중에 우리 4명은 리쓰메이칸 대학교를 출발해서 상해에 도착한 쯤에는 비행기에서

상해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해에 도착해서 이틀째였다. 강의를 오전 오후 각각 듣고 우리 4명은 시내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가기로 했다. 쇼핑몰 내에서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으로 나뉘 구경하기로 했다. 우리 여자 2명은 쇼핑몰 안을 대충 구경하고 나서 수업과 여행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카페에서 잠시 쉬려고 했다. 처음에는 둘이서 이야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이에 둘 다 잠이 들었다. 잠시 잠을 자고 우리는 다시 쇼핑몰을 구경하기로 했다. 잠시 구경을 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내 스마트폰을

찾을 수 없었다. 코트 호주머니 안도 가방 안의 내용물을 뒤집어 구석구석까지 찾았지만 아무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디에 두고 왔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소매치기를 당한 것일까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방금 에스컬레이터 탔을 때인지, 아니면 카페에서 잠을 잤을 때인지, 아니면 어느 가게에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은 없는 거다. 아무튼 찾아야 되겠다고 일어난 나였지만 패닉 상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혼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도움을 받으면서 들른 모든 가게, 카페에 가서 '내 파란 스마트폰을 못 봤나'고 물어봤다. 그러나 다들 입을 모아 '못 봤다'고만 대답 했다. 서비스 센터와 같은 안내소에 들러 도둑 맞았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내 핸드폰은 못 찾고 재경 대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외국에서 경찰서에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핸드폰은 수중에 돌아오지 않았고 중국의 난폭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정말 쓰라린 추억이었다.

중국에서의 쓰라린 추억은 더 있다. 캠퍼스아시아가 시작한 2년째의 중국학기가 1개월을 지난 쯤 갑자기 오른쪽 복부가 아파와서 병원에 가기로 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하셨다. 하

지만 외국에서 수술을 받을 용기가 없는 나는 링겔 치료를 부탁했다. 그 뒤로 3일 동안 링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다녔다. 정말 쓰라린 추억이었지만 중국의 병원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귀중한 경험이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라는 쓴 맛이 짙게 내 삶에 맛을 낸다.

캠퍼스아시아에서 얻은 맛은 쓴 맛뿐만 아니다. 한국에서는 매운 맛도 맛볼 수 있었다. 캠퍼스아시아의 마지막 학기인 한국 학기에는 한중일 각각 2명씩 6명 그룹을 5개 만들고 한중일에 관한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그룹 토론을 하는 수업을 들었다. 내가 속한 그룹의 토론 주제가 '독도는 일본영토인가 아니면 한국영토인가'와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에 대해 찬선? 반대?'라는 두 가지였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쪽, 즉 독도는 한국영토다 라는 주장으로, 야스쿠니 참배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쪽, 즉 찬성의견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룹멤버들과 독도문제에 대해 회의를 시작했지만 전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다. 우리 6명은 원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 일본인 2명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배우고 살아왔다. 하지만 한국인 2명은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주장한다. 중국인 2명은 중립적 입장으로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 영토문제를 보



토론 그룹멤버들과의 회식

고 있었다. 간단히 의견은 종합 되지 않고 충돌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깨어난 것처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 토론을 통해서 평소에는 피하는 화제인 영토문제나 역사문제에 대해 깊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가끔은 충돌하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부딪칠 수 있었다. 평소는 사이 좋은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처럼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매운 맛을 맛보았지만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내 생각에도 깊이가 생겼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쓴 맛과 매운 맛을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맛을 내는

소중한 조미료이다. 물론 캠퍼스아시아에서 경험한 것은 쓴 것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도 많이 있다. 친구들과 중국, 한국에서 여행을 다닌 것, 일본 셰어하우스에서의 공동생활 등 힘들었던 추억보다 즐거웠던 추억이 더 많다. 오히려 일본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해왔다

고 캠퍼스아시아가 끝나고 나서 처음 알았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친구들과 지내고 같이 공부하면서 상호학습 함으로써 더욱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캠퍼스아시아 생활 속에서의 체험 하나하나가 내 삶에 색채를 더해 맛을 더했다고 느낀다.

이렇게 캠퍼스아시아에 참가해서 외국이



셰어하우스에서의 피자 파티

더 가까워지고 여러가지 일에 도전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다.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활약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부터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 일을 할 것이다. 회사원으로서 회사라는 조직 속에 들어가 회사에서 일하는 일원으로써 영업직이나 기획직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데에서 캠퍼스아시아에서의 공동생활과 수업에서 해온 그룹토론과 발표는 내 힘으로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일을 하다보면 의견이 안 맞고 말싸움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 캠퍼스아시아학생들은 자라온 환경, 문화가 전혀 다른 학생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해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해왔던 경험을 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운다는 것은 이미 경험해 봤다.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의

생활은 나란 인간의 성장을 크게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회사원이 되고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있더라도 나는 캠퍼스아시아에서의 경험 하나하나가 생각날 것 같다.

제1기생으로서 참가한 캠퍼스아시아는 이제 프로그램이 상설화 되고 각국 매년 20명씩 캠퍼스아시아학생이 탄생할 것이다. 앞으로 캠퍼스아시아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캠퍼스아시아에서의 경험 모두가 자기 삶과 생각에 깊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험을 하면서 쓴맛을 맛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소중한 맛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줄 것을 바라며 학생들이 충실한 학장시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제1기생을 포함한 캠퍼스아시아 학생들이 동아시아라는 테두리를 넘어 넓은 필드에서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살려 활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장려

ESSAY for CAMPUS Asia 2015

Zheng Lu Peking University
(Consortium: Seoul National University-Peking University-University of Tokyo)

● Motivation and Preparation

I first noticed the recruitment announcement of CAMPUS Asia Program in 2011, when I was still a junior at Peking University. Tak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s my major at that time, I had a huge interest in Northeast Asian affairs, which triggered my passion for this exchange program naturally.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application, I wrote to the teacher who was in charge of CAMPUS Asia Program at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to ask for more details on the application procedure, took IELTS exam to replace my expired TOEFL score, and searched for the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including students' feedback presented on the website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NU.

● My SNU life

Compared to the life in Tokyo, my life in SNU was far more organized and busy, which shall be definitely attributed to Haemin CHOI, our awesome coordinator from GSIS, SNU.

Although exchange students to SNU only have to take two courses, CAMPUS Asia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at least three courses, however not only restricted to the ones offered by GSIS. As I majored in Korean in my undergraduate study, I selected three courses which were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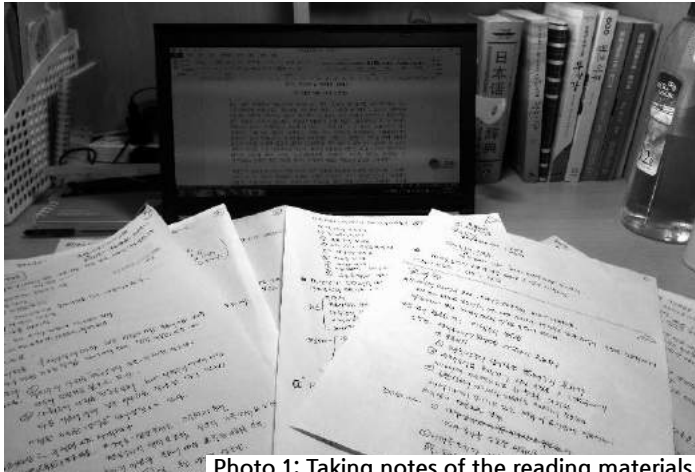


Photo 1: Taking notes of the reading materials.

taught in Korean: North Korean Seminar (GSIS), Korean Society (GSIS), an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chool of Humanities). Personally speaking, courses in SNU were more demanding than that in Todai. After I came to SNU, I didn't even have a chance to go downhill in around 20 days for finishing the weekly reading materials and preparing my first presentation.

Looking back to the 4 months I spent in SNU, the most valuable experience also came from the academic area. I have been indeed interested in North Korean issue / unification issue since a long time ago. However in China, although we have North Korean students in the campus, we can go to North Korean restaurants freely, my class went to North Korea for

our graduation trip and I even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a North Korean officer when I did my internship at UNDP China, that is almost all we could have with North Korea—only something on the surface. Thos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in China are usually sent by the

government which means they are under restrict control to either refrain from talking more about their status and the situation in their country or show a firm stand in support of their government. When I was preparing for a presentation in one of my graduate courses at PKU with a topic of North Korean Defectors, I searched in China's database only to find one related paper and it viewed this problem from an official perspective. My interest in North Korea and the fact that I could not get enough useful materials made me to look forward to my life in SNU. As a result, after I came to SNU, I selected North Korea Seminar offered by GSIS, and applied to become one member of the Unification Academy hosted by



Photo 2: Group photo at the Graduation Ceremony of Unification Academy.

SNU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which lasted for one semester. In the class, the professor shared her knowledgeable information and insights into North Korea with us without reservation and our research even went beyond the class. We went to Ewha Womans University to participate in North Korean Movie Festival and listened to the talks given by North Korean people there. In the academy, we listened to the lectures given by scholars, reporter who specializes in unification issue, former directo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South Korea as well as former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with diverse topics, discussed freely in the group, and

communicated lively with the lecturer. Throughout this short one semester, I have gained a great amount of knowledge of North Korea, an asset to my future academic research as well as personal interest.

Apart from academic life, we had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 a CAMPUS Asia student. Round Tables were for us to discuss various social phenomenons in the three countries, Field Trips to Jeonju and Jeju Island created valuable experiences for all of us of being together while tasting the beauty of Korea, newly added activity--Korean Traditional Dance provided us with a new angle to know Korean culture.



Photo 3: Preparing for our final CAMPUS Asia presentation at CNN Cafe, GSIS.



Photo 4: Professor was showing us the dance.



Photo 5: Group photo in Korean Traditional Dance.



Photo 6: Field Trip to Jeonju.



Photo 7: Field Trip to Jeonju.



Photo 8: Tea field, Jeju Island.



Photo 9: CAMPUS Asia Bicycle Team at Parang Island, Jeju Island.



Photo 10: HyeopJae Beach, Jeju Island.



Photo 11: Jeju Ecoland.



Photo 12: Jeju black pork self-BBQ.



Photo 13: After shooting the video clip at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Besides, by coming to Korea, I could also have the chance to attend lectures and activities hosted by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he organization I came to know since its establishment. Together with another CA Korean student and Japanese student, we went to TCS for shooting a short video clip, expressing our personal experience and thoughts towards a TCS activity called 808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which was indeed exciting as it underlined again that the three countries share lots of things in common in the cultural sphere.

● Korea, What is my impression?

CAMPUS Asia was my third time

visiting Korea, but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started to view this country from a more objective view. As a student who majored in Korean for four years, I have been carrying almost only

positive impressions of this country. This time, I came to know more about the dark side of Korean society by listening to the lectures, chatting with my Korean friends, and experiencing the country by myself in a lower pace while deeper extent.

● Recommendation for the improvement

So far, CAMPUS Asia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still restricted to culture understanding. As the three countries have very close however complicated relationships especially in historical and territorial area, I think it will help us more and further if we could have some chances to visit some places which will touch upon sensitive issues (e.g. House of

Share—where Comfort women live). Currently our interaction and round table topics are still kind of superficial, we actually didn't have the chance to talk about the REAL issues and I have the feeling for the program that it's better to avoid talking about sensitive issue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e past August, I participated in the “Young Ambassador Program” organized by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in Seoul. And the most impressive thing in the program to me is that we had a “Frank Talk” session in which we could only deal with sensitive issues including comfort women, territorial disputes and extreme nationalism. We had really heated debate and sharing during the preparation period and presentation time through which I learned a lot. Some participants even cried when giving our last words on the last day because they said they once felt hopeles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mong CJK, however after taking part in this program they discovered that there were so many peers who have the determination to improve the relationship and although we had

very frank talks in this program, in the meantime it was actually the best chance for all of us to go into the essence of the problem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facing now.

Be friendly to others is not difficult, many cultural exchanges can solve this problem. However still be friendly to others even you have touched upon sensitive issues which closely related to your national interest and was quite different from what you have learned in your past 20 or more years is very difficult. I hope CAMPUS Asia Program could be the one to encourage students to go further and deeper so that the students could be the real pioneer in Northeast Asian region.

● Tips on living abroad & Words for future participants

CAMPUS Asia SNU team has prepared a series of activities. If you want to take the most out of this one year, please be involved in the activities as many as possible, and be ready to talk and share!

Don't let the Gwanak Mountain be the

barrier to your life in Korea. During the past 4 months, the only thing I regret was that Gwanak Mountain made me feel tired so that I have spent much time in the school instead of going out. Before going to Korea, I promised myself that I would go to every place of this country, using weekends and holidays. However

this plan was soon miscarried due to the inconvenient geological location and transportation of SNU. So please don't make the same mistake as I did, take good use of your time and experience the country as much as you can.

Be fully prepared for this program, and you can receive more than you expected.



장려

유럽에 에라스무스가 있다면, 동아시아에는 CAMPUS Asia가 있다

김석모 성균관대학교
(사업단: 성균관대/서울대-칭화대/인민대/상해교통대-나고야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 유럽에서 교환학생 혹은 해외수학생을 경험한 학생이라면 듣고는 꼭 한번쯤은 어리둥절할만한 용어중 하나다. 이유인즉, 자신을 소개할 때 나와같은 유럽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교환학생이라 말하지만, 유럽 학생들은 특히 유럽연합 국가출신의 학생들은 자신을 에라스무스 과정이라 소개하기 때문이다. 외부자로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긴밀한 연대성과 공동체적 의식을 느끼기에 자못 나와는 다른 것인가 여기게 된다. 사실 Erasmus (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는 유럽연합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광범위한 대학생 교육교환 프로그램이다. 자못 그 역사가 벌써 30년 정도 되었는데 젊은 대학생간의 교류를 거쳐 이제는 평생 학교까지의 교류로 확장되는 추세다.

캠퍼스 아시아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과 그 활동들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교환학생과는 달리, 캠퍼스 아시아는 독특한 느낌을 선사하는 해외학술교류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일본, 중국으로 떠나는 것을 넘어 캠퍼스 아시아는 촘촘하게 짜여있는 일정들 속에 아시아, 좁게는 동아시아라는 연대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나 역

시 자신을 소개할 때 교환학생이 아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독특한 이름표를 붙일 수 있었다.

본 수기는 일반적인 교환학생을 한 번 경험해본 학생으로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지닌 독특함이 선사했던 이야기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제교류라는 측면에서 후자가 지닌 중요한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개인의 선택에 두어야 하는 교환학생과 달리,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후자가 지닌 장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커다란 것이었다. 대화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대학생간의 교류만큼 화합과 상생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를 매우 잘 만족시켜주는 훌륭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기를 시작해 본다.

● 긴장감 넘치는 수업!

2015년 나고야에서 펼쳐진 캠퍼스 아시아의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뜨거운 햇살도, 즐거웠던 여행도 아닌 바로 수업 그 현장에 서였다. 총 2가지 강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미국인 교수가 진행했던 협상론 수업 그리고 한국인 교수가 맡은 정치학 수업이었다. 특히 후자의 강좌는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와 흥미를 유발시켰다. “동아시아적 정치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정치학도로서 물론 아주 새로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 시간의 핵심은 제공되는 내용보다도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의 다양성에 있다.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의 주

요 국가들에서 온 학생들과 중국의 부상(the rise in China)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리 흔한 기회는 아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군사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열띤 수업과 토론

펼쳐졌고, 각자는 자신이 국가의 대표가 된 것인 마냥(!) 치밀한 논증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논쟁의 성격상 불가피한 의견충돌도 그리고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소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의 성장이 동아시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위협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세션이 가장 압권이었다. 세계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은밀한 생각들이 공유되고 그를 통해 나름의 공통지점을 찾아가는 작업은 사실 이 수업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동아시아 직면한 가장 큰 필요일지도 모른다.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숙사의 학생 배치는 신의 한 수였다. 주최 측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각 방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배치되었고,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공간인 주방과 식당은 수업의 연장선상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제공해준 곳이었다. 수업 때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방의 탁자에 앉아 다양한 친구들과 맥주 한 캔씩 마시며 이야기할 때 보다 생동감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은밀한 이야기들 수업 때는 나눌 수 없는 기이한 질문들까지! 다행히 모든 대화의 마무리는 동아시아 국가

들의 평화와 여기 모인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건배로 끝나쳐졌다.

● 교실에서 감옥으로?

캠퍼스 아시아의 백미는 바로 현장학습에 있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방문(research visit)과 단체로 함께 하는 견학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교실 밖을 떠나 학생들과 함께 혹은 삼삼오오 모여 갔던 시간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들을 선사해주었을 것이다.

먼저 단체로 함께한 견학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기억에 남는 방문은 GIFU 교도소와 나고야 지방법원 방문이었다. 다행히 태어난 이래 이 두 시설을 방문할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신선한 경험이었다. 먼저 교도소 방문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소 긴장된 시간이었을 것이다. 우



일본식 수갑과 견봉을 체험하는 진지한 표정들

리는 실제로 교도관의 인도를 따라 수감자들의 생활을 비디오가 아닌 눈으로 푹푹히 관찰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다.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일하는 곳, 그들이 휴식하는 곳까지, 타국의 감옥을 이렇게 면면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경험이 아닐 것이다. 이후 교도관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교도소는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놓는 곳이 아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있어 교도소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인권수준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 수감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화 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방문했던 GIFU 교도소는 상기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교도소에 이어 법원의 방문 역시 충격적이었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캠퍼스 아시아는 그렇게 녹록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청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난생 처음 참여하는 실제 재판과정,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가운데 앉아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었다. 짧은 일본어

때문에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약소유와 관련된 재판이었고, 나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등장할 때는 무언가 짝한 마음까지 들었다. 아무튼 드라마 혹은 영화로 보던 재판과정을 일본까지 와서 생생히 볼 수 있는 기회 역시 일반 교환학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님에 분명했다.

교도소과 법원 방문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고, 일본의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역시 느낄 수 있었다. 국가의 능력이란 단순히 매년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만 측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체제가 돌아가는 다양한 요소들이 각기 체제가 품고 있는 규범과 원칙에 얼마나 부응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국가로서 일본이 수행하는 부분들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다.

● 일본의 정신을 느끼다

캠퍼스 아시아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연구방문은 개개의 학생들이 미리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방문할 곳을 선정하고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과 함께 삼삼오오

떠나는 여행, 나는 특별히 이번 연구방문에서 일본의 정신세계 탐방이라는 주제를 갖고 준비했다. 그렇게 선정한 곳은 바로 이새신궁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박물관이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일본의 장소들 중 하나는 야스쿠니 신사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이새신궁은 야스쿠니 못지않은 혹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 그들의 성소다. 이새신궁은 일본의 건축가들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건물로 꼽히는 곳으로,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의 문화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3대 신궁 중에서도 이새신궁은 천황이 가장 많이 관여하고 그 역사만 해도 벌써 1400년이 훌쩍 넘었다. 목조건물이 1,400년을 버틴다는 것은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나고야에서 약 한 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도착하니 벌써 많은 일본인 방문객들로 작은 도시는 붐비고 있었다. 아마 한 해중 가장 더운 날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타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구석구석 작열했지만, 신사를 방문하는 그들의 의지마저 꺾을 수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천년이 넘는 곳이라기에 상당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신궁에 도착했을 때 생각



신궁 건축을 위한 의식

과는 전혀 판판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 목조건물이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새로 지어진 신궁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다. 일본인들은 20년에 한 번씩 이새신궁 옆에 완전히 동일한 건축물을 세운다, 즉 690년부터 1993년까지 61번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더불어 신궁을 짓기 위한 목재까지도 수백 년에 걸쳐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약 8년에 걸쳐 완성된다. 몸서리칠 질 만큼 일본인들의 철저한 삶의 방식이 녹아져있는 신궁,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들이 평생에 꼭 한 번 가야만 하는 장소가 되었다. 가장 새롭지만, 가장 오래된 이라는 아



주 역설적인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었다.

다시 나고야로 돌아와서 방문한 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기념하는 박물관이었다. 나고야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까지 일본의 센코쿠 시대 핵심 인사들의 중심지로 유명한 도시다. 그만큼 도시 곳곳에 당시의 기억들을 보존되어 있는데 도쿠가와 박물관은 그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다. 특별히 일본인 친구 2명, 대만친구 1명과 함께 했던 박물관 체험은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남겼다.

약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에 있던 많은 유물들의 보존 상태는 매우 훌륭했다. 당시 사용하던 전쟁도구, 의상뿐만 아니라 생활하던 공간까지 복원함으로써 센코쿠 시대로 돌아온 인상을 주었다. 특히 요소요소에 역사적 설명들이 깃들어 있었는데 사건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된 장소에서 벌어졌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 그곳에 적혀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친구들이 나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친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왜 도요토미가 전쟁을 일으켰고 당시 조선과 명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알려줬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누린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 동아시아 신뢰의 초석, 캠퍼스 아시아 신뢰를 쌓아가는 작업은 늘 그렇듯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는 늘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캠퍼스 아시아의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우리가 다르다'를 제대로 알려주는데 있는지도 모른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소통과 신뢰가 시작된다고 볼 때, 캠퍼스 아시아의 기회는 일반적인 교환학생으로는

누릴 수 없는 다채로운 경험들과 그 속에서 형성된 연대성은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지금의 유럽연합의 든든한 주춧돌이 된 것처럼, 동아시아의 연대는 대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가장 자유롭고 열정 넘치는 시절에 쌓인 신뢰와 믿음들은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주축으로 세워졌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처럼 보다 확장된 프로그램과 대규모단위의 학생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에 엔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며 2015 캠퍼스 아시아 나고야 ISS의 기억을 마무리 지어본다.



장려

행운이 가득했던 도쿄, CAMPUS Asia 프로그램

박홍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업단: 한국과학기술원-칭화대-동경공업대)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때는 2014년 가을입니다. 그때는 제가 덴마크공대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던 때였습니다. 무려 빅맥지수 4위를 할 정도로 물가가 높은 국가인 덴마크에 거주하던 저는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록금과 숙소를 무료 제공하고, 추가로 체재비까지 제공한다니 이런 기회는 정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동경공대 교수님에게 연구를 배울 기회를 준다는 점도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덴마크에서 캠퍼스아시아 지원서를 단숨에 작성했습니다. 무사히 지원서를 제출했고, 2015년 여름 동안 일본 동경공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1: 일본 쓰키지 어시장(築地漁市場)의 초밥 식당 앞에서

장려

일본으로 가게 된 저는 동경공대 측에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주어서 나리타(成田)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픽업 담당 직원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KAIST 친구 한 명과 함께 이동했는데 그 친구는 일본어를 할 수 있었고,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그 직원은 일본

어를 하는 친구와만 대화했습니다. 저는 숙소에 돌아가면서 ‘일본어부터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영어가 거의 안 통하는 일본에서 저는 정말 문맹이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주말에 저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공부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니 전철 광고판의 글자를 읽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어렸을 때 한자를 공부시키시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에서 일본어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경야독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낮에는 연구실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실험했고, 밤에는 일본어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교수님들께서는 영어를 할



사진 2: 숙소 주방에서 만든 파전을 접시에 담는 모습

수 있었기 연구를 위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던 KAIST 친구가 숙소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파전을 팔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할 일도 없던 터라 저도 같이 참여했고, 재밌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전도 못 챙기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예상외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 팔고 나서 다른 팀에서 요리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열심히 준비한 공연도 무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의 휴식도 잠시,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실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KAIST에서 두 달 정도 레이저를 쓰는 물리화학 연



사진 3: 3회 Soft Molecular Systems 학회에서 본 연구 발표

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결국은 원했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일정상 아직 연구 결과로 논문을 쓰지는 못했지만 교수님께서 논문을 쓸 때 수년 안에 공동 저자로 등록해

구실에서 공부해 본 경험만 믿고 왔지만 조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잘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의 연구실은 한국과 달리 한 연구실에 여러 명의 교수님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연구실 두 분의 교수님 중에 정교수님이 저의 지도교수였지만 조교수님과 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실에 있으면서 KAIST만큼이나 동경공대도 연구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주제는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회전하는 일산화질소(NO) 분자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교수님의 질소 분자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의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다른 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조교수님이 제 이름을 도쿄에서 열리는 학회에 등록해주셨습니다. 처음 가보는 화학 관련 학회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회 장소가 오다이바였기 때문에 학회가 시작하기 전에 후지 TV 본사 견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가 시작되었고 일본의 명문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들 동안 참여했던 학회에서 일본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높은 과학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경공대에서 열리는 수업을 세 과목 수강했습니다. “Advanced Technology in Emerging Fields 2” 과목의 수업 중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앞으로의 인생에서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시간을 잘못 알아 15분밖에 일찍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알았다면 얼마나 빨리 오려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수업에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이 지각은 절대 하지 않았고 미리 수업에 오셨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Science & Engineering, Communication Project” 과목은 조별로 동경공대 부속 고등학교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한 조의 조장을 맡았습니다. 조별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잘 도와주고 따라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매 수업이 이뤄지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맡은 일의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이 있었고, 결과도 인정을 받아 100점(A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연구실에서의 실험과 학교에서의 수업을 병행하면서 지냈습니다. 견학 수업인 “Advanced Technology in Emerging Fields 1”의 일정이 주로 8월



사진 4: Science & Engineering, Communication Project 과목 수업 중 토론하는 시간

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본의 국립 연구소인 리켄(RIKEN)과 유명 기업인 소니(SONY)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두 곳에서 각각 리켄이 자랑하는 대단한 규모의 입자 가속기와 소니의 최신 전자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일본이 견재하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거나 더 뛰어난 과학과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원 진학과 함께 속하게 될 기초과학연구소(IBS)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일본에 있는 동안 도쿄 내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여러 군데 찾았습니다. 특히, 우에노 공원에 국립 박물관과 여러 미술관이 밀집해 있어서 이틀 동안 우에노 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유명한 화가에서부터 일본 내 화가들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많은 일본인이 작품의 관찰과 함께 세밀하게 설명을 읽으며 공부하는 자세를 보고 부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부터 문화적인 시민이 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8월에는 두 분 교수님도 해외로 학회를 가셨고 수업도 자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후지산 근처로 온천이 유명한 아타미(熱海) 근처와 도쿄부에 속한 섬인 오시마(大島)에 2박 3일로 떠났습니다. 오시마로 가는 배표를 구해야 하는데 인터넷 예약에 실패해서 갈 수 있을지 불확실했지만, 아타미 숙소 주인께서 도와주신 덕에 무사히 전화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항구까지 길을 안내해주셔서 초행길임에도 쉽게 배를 타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오시마에 갔습니다.

오시마에 가서도 행운이 따랐습니다. 계획 없이 섬에 도착해서 일일 버스권을 끊고, 버스를 타고 모토마치항(元町港)으로 갔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관광 안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무료 숙소를 안내해줬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어놓은 후에 버스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돌아보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식당에서 현금이 부족해서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이 부족한 그것만 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 숙소에 들어가니 숙소 주인이 마침 파티를 열었으니 같이 와서 놀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절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작은 섬의 인심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5: 오시마(大島)로 가는 배표와 아타미(熱海) 항구 근처 공원



사진 6: 흐린 구름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맑은 하늘 아래 아타미(熱海) 항구

그리고 KAIST에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왔던 동경공대 학생들을 동경공대 측의 도움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과는 지속해서 식사도 같이하고, 주말에 같이 놀러 가는 등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한국이었으면 형이나 누나여서 어려워했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나이에 신경을 쓰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 덕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동경공대에서 KAIST로 온 새로운 학생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참여한 동창생들과 새로운 참여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한일 양국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덴마크에서 살았던 기숙사는 9명이 거주하는 셰어 하우스였습니다. 그때 9명은 신기하게도 모두 국적이 달랐습니다. 그중에는 동경공대에서 교환학생을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동경공대로 가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운 좋게도 그 친구를 일본에서 1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적은 것은 제가 겪은 수많은 즐거운 경험의 일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럭저럭 보냈을 대학 4학년, 나의 여름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서 더 많은 학생이 좋은 경험을하기를 바랍니다.



사진 7: CAMPUS Asia 마지막 행사 중 담당 직원과 모든 참여 학생들이 모여 찍은 사진

2015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China-Japan CAMPUS Asia Project 2015)

| 인 쇄 | 2016년 2월
| 발 행 | 2016년 2월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A동 23층
TEL. 02) 6919-3928 FAX. 02) 6919-3930
| 인쇄처 | (주)명진씨앤피 TEL. 02) 2164-3000
| ISBN | 978-89-6609-975-7
| 자료번호 | RM 2016-02-693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